

SINCE 2016  
2026 Re:Born

# 국제협력캠프 CHEONG-DA-MAL

Korea-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한국-방글라데시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

7

## 활동보고서

CAMP ACTIVITY REPORT

Teenager  
Youth



Food Fo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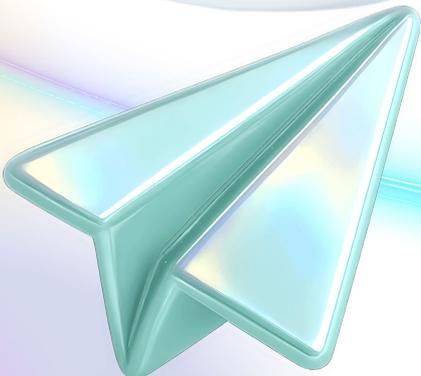
House of Humanity



Light of Life



Harmony for  
Hope



이 주 만 연 대  
사 들 공 회



KBFS  
KOREA-BANGLADESH FRIENDSHIP SOCIETY



**청다말 7 캠프  
주요 활동 지역**

**Tongibari 통기바리**

: 협력단체 BPS 주 활동 농촌지역. 캠프 현장 활동과 주민 교류 진행

**Dohar 도하르**

: 수도 인근 지역, 협력단체 SAMS-92 연계 활동 진행

**Faridpur 파리드푸르**

: 중소도시, 이주노동자 가족 방문을 위해 경유

**Mirpur 미르푸르**

: 수도 다카 인접 밀집 지역. 교육 연계 활동 및 방글라데시 성공회 방문

\*Nou-bihar 노비하르 :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탐사하는 유람 활동

**2026 청다말 7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 Re:Born 활동보고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

발행일 : 2026. 2. 21

발행인 : 이정호 신부

발행처 :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www.SHALOMHOUSE.or.kr](http://www.SHALOMHOUSE.or.kr))

문의 : 031-571-2005 / [nyjshalom@gmail.com](mailto:nyjshalom@gmail.com)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4, 명승빌딩 3층

후원 : 농협 204074-51-023539 (남양주 샬롬의 집)



# 목 차

◆ 인사말 .....	1
◆ 캠프의 취지와 의미 .....	4
◆ 함께한 주요 활동 .....	9
◆ 참가자 소감	

## Part 1. 연대를 설계하다 [전문가]

박현식 ▶ 50년의 보은(報恩), 방글라데시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다 .....	20
장순미 ▶ 강의 나라 방글라데시 .....	23
강명주 ▶ 코리안 드림이 아닌, 방글라데시 드림 .....	32

## Part 2. 흔들리며 건너다 [청년]

강현성 ▶ 또 타고 싶은 배 .....	38
김성현 ▶ 프레임 밖을 보다 .....	42
김도연 ▶ 봉사를 한 게 아니라 받고 온 느낌 .....	45
김현경 ▶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우리가 만났고, 나는 그곳에서 세계를 배웠다 .....	50

## Part 3.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보다 [청소년]

이태우 ▶ 부모가 걸어온 길 위에서 .....	60
김해인 ▶ 그 일주일, 알게 된 것들 .....	68
김정현 ▶ 함께 웃고 시간을 나누는 것 .....	76
윤소이 ▶ 청소년, 다문화의 말을 듣다 .....	80

◆ 전하지 못한 이야기 .....	87
◆ 함께한 순간의 기록 .....	107
◆ 청다말 7을 함께 만든 사람들 .....	132
◆ 2027 청다말 8 캠프 안내 .....	133

◆ 부 록 : 국제협력 후원 캠페인



## ◆ 인사말

단장 이정호 신부  
이주민연대 살림의 집 대표



2016년 제1차 캠프로 시작한 방글라데시와의 국제협력 여정이 어느덧 11년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제가 일흔을 맞이하는 해이자, 청다말 캠프가 11년째, 7번째 캠프로 이어진 해였습니다. ‘Re:Born’이라는 이름처럼, 저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이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넓고 깊어졌고, 세대를 이어 참여하는 흐름이 분명해졌으며, 이 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출발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공동체를 조용히 떠받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여전히 밝았고, 청년은 흔들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찾아갔으며, 전문가는 그 과정을 탄탄히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청소년, 청년, 전문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 섰고,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으며, 누군가는 현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캠프는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연대를 ‘배우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몸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활동 소감들을 찬찬히 읽으며 여러 번 무릎을 쳤고, 감탄했고,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이 전문가들은 연대를 설계하고 있었고, 청년들은 흔들림 속에서도 꾸준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남은 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과거 한국에서 비참하게 일하다 돌아간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다시 초대해, 당당히 한국 땅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자, 늦었지만 사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청다말캠프를 비롯한 샬롬의 집의 모든 활동은 ‘가난한 누군가를 돕는 일’을 넘어, 서로를 이웃으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바라보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입니다. 국제협력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삶의 조건을 함께 바라보고 책임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공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배우고 뛰고 웃을 수 있었던 시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들 뒤에는 늘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현장을 지켜 준 KBFS 현지 스태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를 결단한 모든 단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그 과정의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숫자와 글로 남는 성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로 남은 장면과 느낌들이 이 기록의 알맹이입니다. 함께 뛰던 아이들의 얼굴, 한국의 날 무대 뒤에서 서로를 챙기던 청년들의 손길, 이주노동자 가족의 집에서 나눈 짧은 대화, 강을 건너는 배 위에서 나눈 웃음과 침묵까지—이 장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음 연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다말은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 가는 연속된 과정입니다. 다음 캠프는 새로운 시작이기보다, 이미 이어진 관계를 한 걸음 더 건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연대를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보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부의 감사입니다!  
A3이 감사입니다!

신부님 보다 더  
사랑이 되어 작은 세상의  
평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월동안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뵙고 -이태우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좋아 드립니르.  
늘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1.26. 장준호-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수 있게 해주셔서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자-



이정호

Rev. COLUMBA LEE JUNG HO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삶의 여정은 다들에게는 거가  
보통이지만 신부님께서는 특별한  
삶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주-

"90주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들에  
참여하여 너무 기쁘고 ~  
신부님의 기도로 언제나 감사  
-민석기 + 정현정-

이태우와 카보이고  
건강 감사야 오래 오래  
KBFS 클로 주워!  
-강욱재-

고아! 조아!  
VOKZ  
애프릭

건강은 아낌없이 신부님께!

세상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랑을 남길수 있게되며, 여할 잘해줬다  
그 남기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건강하게요 -행인  
하지만 끝까지 신부님의 사랑과 성도는  
환희로 가득합니다!  
-김민-

신부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캠프  
참가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사랑하는 그 마을,  
잘 배워갑니다!  
만수무강하게요 -도연-



신부님이 주신 훈련과  
도움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함  
건강하시고 앞으로  
각 캠프도 영 바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신부님 최고! 사랑!  
신부님께서 영혼을 주신 '차면' '함께'  
'이웃사랑'의 메시' 아름이 잘 세계가 있습니다  
God Bless You! -정현-

# 캠프의 취지와 의미

연대와 성장의 여정

##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이해는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 속에서 이해는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청다말 캠프'를 통해 바라고 만들어갈 방향입니다.

## 캠프의 역사

2012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현지 캠프는 2016년에 1기 캠프가 출발했습니다.

2026년 청다말 7 캠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199명의 전문가 - 청년 -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 ReBoot - ReYouth - ReBorn

코로나 이후 2024년부터 청다말 캠프는 매회 새로운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도약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 지향점

- 단기 봉사 아닌 지속적 연대  
청다말 캠프는 일회성 방문이나 보여주기식 봉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현지 NGO, 귀환 이주노동자, 지역 공동체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마다 연결을 이어가며 필요한 역할을 함께 찾는 지속적 연대를 목표로 합니다.
- 전문가-청년 스태프-청소년 단원이 함께 만드는 구조  
청다말 캠프는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운영이 아니라, 전문가·청년 스태프·청소년 단원이 각자의 역할로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전문가는 방향과 안전망을 만들고, 청년 스태프는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주체로 성장하며, 청소년 단원은 국제협력의 경험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으로 자라납니다.

# 청다말 7 캠프 주요 성과

## 핵심 지표

### 한국 출발 단원

: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캠프단원 수 **20명**

### 전문가 강연 및 소감 나눔

: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소감 나눔 횟수 **3회**

### 문화 교류 공연 및 관람

: 문화 교류를 위한 공연 및 관람 **2회 (총 4시간)**

### 개인 및 단체 후원품·격려금 지원

: 개인·단체 **50곳**

### 문화·체육 프로그램

: **6시간, 300명 이상 참여**

### 국내·외 후원 및 협력 네트워크 규모

: 개인·단체 약 **110곳**

### 가정 및 사업장 방문

: 현지 가정 및 사업장 방문 횟수 **10개 가정·사업장**

### 한국 음식 나눔

: 한국 음식 나눔을 통해 교류 활성화 약 **300인분**

### 학교 프로그램 운영

: **4개 학교, 12개 프로그램**

### 한국의 날 음식 나눔 및 문화교류 행사

: 1일 1지역, 연인원 **800명 이상 참여**

### 캠프 기간 교류 참여 연인원

: **2,500명 이상**

### KBFS YOUTH(청소년) 캠프 전 일정 참가자

: **3명**

## 요약

이번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 이상**의 연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날** 행사에는 **800명 이상**이 참여하여 한국음식 나눔과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110곳 이상**의 국내외 후원 및 협력 단체와 함께 **50여곳**에 후원품과 격려금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지지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3명의 현지 청소년**이 현지 캠프의 전 일정에 참여하여 다음 세대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2026 청다말



한국에서 출발한  
캠프 단원

20명



전문가 강연  
& 소감 나눔

3



문화교류공연  
& 관람

2회  
(총 4시간)

50

개인 및 단체 후원금  
격려금 지원



110

국내외  
협력 및 후원  
네트워크 규모



10

가정 및 사업장  
방문



300

한국 음식 나눔



2500

캠프기간  
교류 참여 연인원



3

KBFS YOUTH [청소년]  
캠프 전일정 참가자



문화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6,300+  
시간명



끊임없이 이어질  
청다말의 꿈과 연대



청다말 8 캠프  
출발 예정일

2027.01.11





## ◆ **함께한 주요 활동**

■ **사전 준비 활동** 본 캠프에 앞서 사전설명회, 전이해교육(3회), 스태프·전문가 회의(5회), 후원의 밤, 발대식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캠프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자 가정 및 사업장 방문** 과거 국내에 체류했거나 현재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현지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주 이후의 삶과 귀환 이후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요 숙소를 귀환 이주노동자의 가정으로 활용하며, ‘이주’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삶과 연결된 과정임을 체감하고, 노동과 이주의 구조를 삶의 조건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협력단체 현지사업 참여 및 지원** 현지 협력단체의 진행 중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비와 관련 물품을 지원하며, 방글라데시 성공회 교회에 사회선교 활동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현지 공동체 기반 활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단기 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며, ‘돕는 주체’와 ‘도움받는 대상’의 구도를 넘어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을 지향했습니다.



■ **예체능 교육 활동**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명랑운동회를 통해 예체능 중심 교육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언어적 소통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놀이와 움직임, 공동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고, 함께 뛰고 웃으며 교류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의 연대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청년스텝과 청소년 단원들은 프로그램 진행, 안전 관리, 현장 보조 역할을 맡아 공동체를 지탱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학교 운영 지원** 현지 민간교육시설 3개소에 학용품과 생필품,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공공 지원 없이 민간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교육 공동체를 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 환경과 조건을 직접 확인하며, 교육 격차와 지역 간 자원 불균형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생활환경 체험 · 현지 이해 활동** 야간 도보 이동, 노비하르(강 탐사), 시장 방문, 가족 간 교류 등을 통해 현지의 생활환경과 일상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관광 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생활 공간을 따라 움직이며, 현지 사회의 구조와 맥락을 몸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방글라데시를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의 날 문화 교류** 한국 음식 나눔과 양국의 문화 공연을 중심으로 ‘한국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각 공연과 체험은 현지 청소년과 캠프 참가단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준비 과정부터 무대 운영까지 청년·청소년 단원들이 함께 만드는 협력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한국의 날’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관계를 빠르게 여는 중요한 접점으로 기능하였습니다.



**■ 그 밖의 활동** ▶전문 촬영팀 동행 ▶방글라데시 성공회 교회 방문  
 ▶가족 편지 낭독·전달 ▶가족 추모 방문 ▶팀빌딩 전문가 강연·소감 나눔  
 ▶공동 식사·취사 및 생활 공간 공유 ▶서로의 자원봉사와 헌신을 돌아보며  
 고마움을 전하고 다음 여정을 격려하는 나눔 등을 통해, 활동을 기록·성찰  
 하고, 관계와 정서의 연결을 회복하며,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다말캠프가 ‘행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 논의와 참가자 제안을 반영한 다음 캠프 개선 과제

- 사전 교육 강화(현지 이해, 역할, 기본 태도)
- 노비하르(강 탐사) 프로그램 적정성 · 효과 검토
- 도하르 명랑운동회 개최 확정 및 운영안 마련
- 주요 숙소 식재료 보관용 냉장고 추가 확보
- 현지와 함께 남길 공동 제작 활동 기획
- 여성 자립 · 자활 연계 프로그램 가능성 검토
- 캠프 이후 성과 공유 및 후속 연대 구조 설계
- 기록 · 영상 아카이브 체계화 및 활용 방안 마련
- 안전하고 존중받는 캠프 환경 조성 기준 고도화
- 현지 의료 연계 및 응급 대응 체계 점검 · 보완
- 의약품 준비 및 보건 · 안전 대비 체계화
- 스태프 보강 및 역할 분담 구조 명확화
- 운영 스태프 매뉴얼 보완 및 상시 활용 체계 구축

◆ 참가자 소감

Part 1. 연대를 설계하다

[전문가]

# 50년의 보은(報恩), 방글라데시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다(요약본)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무총장 박현식

## 1. 머리말 : 50년 전의 소년, 방글라데시로 향하다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대한민국은 해외 원조 물품에 의지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나누어주던 옥수수 빵과 원조 물품을 받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육군 대령으로 퇴임하여 행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는 그때 받은 사랑을 되갚기 위해 ‘이주민연대 살림의집’과 함께 방글라데시 통기바리(Tongibari)로 향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저에게 단순한 나눔이 아닌, 반세기 전의 저 자신과 마주하는 ‘보은의 여정’이었습니다.

## 2. 현지 활동 : 맑은 눈망을 속에서 발견한 희망

방글라데시 통기바리 지역의 교육 환경은 열악했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 어느 곳보다 맑고 빛났습니다. 저는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기자재를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대한민국이 걸어온 발전의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이 50년 전의 저처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또한, 현지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시적인 구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고향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는 시간은 살림의집이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3. 살림의집과 ‘희망의 집(House of Humanity)’

이번 봉사 활동의 중심에는 이정호 신부님이 이끄는 ‘살림의집’이 있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 그들의 고향에까지 희망을 전파하는 살림의집의 활동은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방글라데시 현지 ‘희망의 집’ 건립 프로젝트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의 고된 삶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행정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태어 이 거룩한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4. 맺음말: 나눔의 선순환을 꿈꾸며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더 큰 선물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전 제가 받았던 옥수수 빵 한 조각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듯이, 이번에 우리가 전달한 작은 정성들이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

본 상세 소감과 개인적 서사를 담은 기록은 활동보고서 발행일 현재 더 넓은 세상에 살림의집의 활동을 알리고자, 지상과 라디오 방송국(MBC 여성시대)에 사연으로 접수되어 방송 직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이 감동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살림의집의 일원으로서 이주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MBC 여성시대 다시 듣기

<https://www.imbc.com/broad/radio/fm/womenera/podcast/>



본부장님!  
너무 감사해요.

중앙대생들한테 사또하게 도와주신  
분위기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응원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민규-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현성-

맛집과 맛집 정보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

행정사님 내일

저희 생애노후 사드도  
늘게 하시고 기 감사했습니다!  
-정현-

청다말 캠프는 비록 소  
행정사님 참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지만  
다음 캠프 단장으로

활성!! 본부장님 저희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식도 알려주시고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도연-

강력

추천드립니다

-윤국강-



박 현 식  
PARK HYUNSIK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영제도 잘하시고  
많은 도움도 되고 진짜 인문  
이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모차 때 저랑 같이 또 가보  
로감 추이드립니다. -이태우-



과제님 감사해요!  
이번 캠프도. 과제님 덕에  
무시한 중. 정말 생동감있고  
알려도 더 좋은데  
외국 -

2026. 1. 26. 245기

소고했어요,  
늘 감사합니다...  
-J알림-

본부장님 최고리리  
관원들의 멘탈과 건강도 향상  
캠프기간 동안 관계하는 KBFIS  
관원들과의 소통 대안  
덕분에 더욱 해가 되어줘서  
앞으로도 사랑해주시길  
-김민정-

좋은 반성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민-

Very nice guy  
Khan

## 강의 나라 방글라데시

더청춘  
대표 장순미

2026년 1월,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된 청다말 7기 캠프(Re:Born)에 작년 6기에 이어 연속으로 참여했다. 본 캠프는 국제 교류와 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성인 전문가, 청년,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다말은 단순한 해외 방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대와 배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캠프다. 지난 청다말 6기의 주제는 Re:Youth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청소년 교류 활동을 다시 이어가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어 진행된 2026년 청다말 7기의 주제는 Re:Born(재탄생)으로, 단순한 새로운 출발을 넘어 기존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보다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었다.



나는 장기요양 전문기관인 더청춘의 대표로서 의료 담당을 맡아 캠프 전반의 건강 관리를 책임졌다. 방글라데시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국내와 다른 위생 환경을 가지고 있어 탈수, 감염성 질환, 피로 누적 등의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포함된 일정은 체력 소모를 더 크게 만든다. 참가자는 성인 전문가, 청년,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연령대별 신체적 특성과 환경 적응 속도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 관리는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일일 컨디션 점검, 신속한 응급 대응, 현지 의료기관 연계와 실제 이용 체계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강현성 사무원은 더청춘 직원 대표로 참여해 기관의 가치와 활동을 공유하고, 현지 청년 그룹 활동을 지원하며 캠프 운영 전반을 함께 책임졌다. 더청춘 임직원들은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의 후원으로 캠프에 동참했다. 푸드포라이프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했고, 현지 여아 마드라사 운영비도 함께 지원했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기관 차원에서 이번 캠프에 책임 있게 결을 맞춘 선택이었다.

청다말 6기와 7기를 연속하여 참여하면서 캠프의 흐름과 변화,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여정과 의미를 정리한 기록이다.

## **건강 관리 및 예방 활동**

방글라데시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국내와 다른 위생 환경을 갖고 있어 탈수, 감염성 질환, 피로 누적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또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포함된 일정은 체력 소모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캠프는 성인 전문가, 청년,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연령대별 신체적 특성과 환경 적응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의료 관리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일일 컨디션 점검, 신속한 응급 대응, 현지 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캠프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혈압·체온·맥박 등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여 기초 건강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중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성인 전문가 그룹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피로 누적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활동 강도와 이동 거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정과 역할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통해 캠프 전반의 건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 발생 사례 및 대응

### ▶ 열상 응급 처치

한국의 날 음식 준비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손 부위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지혈을 시행하고 상처를 세척·소독한 후 멸균 거즈로 압박 처치했다. 현지 환경에서는 2차 감염 위험이 높아, 이후에도 상처 부위를 계속 관찰하며 추가 소독을 병행했다. 감염 징후나 염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다..

### ▶ 장염 및 탈수 사례(현지 병원 이용)

청소년 참가자 중 장염 증상과 함께 고열 및 탈수를 보인 사례가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전해질 보충과 체온 관리 등 기본적인 응급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회복 속도가 더디, 현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진행하였다.

현지 스텝의 협조를 받아 병원 진료 동선을 확보하였고, 병원에서는 기본 검사와 수액 처치를 통해 상태를 안정화하였다. 언어와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한 실제 병원 이용 경험을 통해, 이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경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료 이후에는 숙소에서 추가 경과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추가적인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했다.

#### ▶ 경미 증상 관리

두통, 감기 기운, 피로, 경미한 탈수 증상이 일부 참가자에게 나타났다.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을 통해 관리했고, 중대한 의료 사고 없이 캠프가 종료되었다. 사전에 준비한 응급 처치 키트와 기본 의약품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 해외 캠프 의료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이번 캠프는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현지 병원을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 경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의료 환경은 지역에 따라 접근성과 시설 수준 차이가 크고, 위생 조건과 기후 특성상 감염성 질환과 탈수 위험이 높은 의료적 취약 환경이다. 응급 의료 자원의 한계, 약품 구비 수준의 차이, 진료 접근의 시간적 제약 등은 향후 해외 캠프 운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응급 의료 자원의 한계, 약품 구비 수준의 차이, 진료 접근의 시간적 제약 등은 해외 캠프 운영 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요소이다. 감염성 질환 대비 의약품, 소화기 관련 약품, 전해질 보충제, 체온 관리 물품 등은 환경적 위험 요인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 물품 구성의 표준화와 사전 점검 체계 강화도 요구된다.

가능하다면 위급 상황에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의료 전문 스템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캠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 활동은 예측 불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한 인력과 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철수 시 잔여 의약품은 일괄적으로 반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약품별 용도·복용 방법·주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과 함께 전달하였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인계한 조치였다.



## 청다말 7기의 의미와 향후 방향

청다말 6기가 단절 이후의 회복을 상징했다면, 청다말 7기는 관계의 재정립을 상징하는 시간이었다. 두 기수를 연속적으로 경험하며 공동체가 단순한 회복을 넘어 관계의 흐름을 다시 잇고 구조적으로 재정비되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를 다시 세워가는 전환의 국면이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역할을 가진 참여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협력하는 장면은 별도의 연출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공동체의 성숙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난 지점이기도 했다.

이주민과 선주민,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하는 구조 속에서 ‘동등성’과 ‘연결’의 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역할과 위치는 달랐지만 관계는 수평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고, 상호 존중과 협력은 캠프 전반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였다. “다르지만, 동등하게”라는 방향성은 기획 단계뿐 아니라 현장의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 녹아들었으며, 이는 공동체 운영의 실제적인 기준이 되었다. 건강 관리와 안전 지원 또한 이러한 공동체 운영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다. 의료적 지원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모든 참여자가 안심하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강의 나라’로 불리는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특성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 포함되었다. 300개가 넘는 강이 흐르는 이 지역에서 강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생활과 이동, 문화가 연결되는 통로였다. 통기바리에서 도하르까지 배로 이동한 경험은 현지의 교통 방식과 자연 환경을 몸으로 이해하는 계기였고, 강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의 풍경과 삶의 방식은 방글라데시 사회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었다.

이동 과정에서 현지 스태프의 배우자가 참여자들에게 직접 헤나 타투를 해주며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생한 만남이었고, 전통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나눈 대화는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은 교류의 장면들은 공동체적 연대의 감각을 실제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청다말 7기 Re:Born은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자,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회복에서 재정립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연결’과 ‘동등성’의 가치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는 향후 청다말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 결론(다시 가고 싶다)

청다말 7기(Re:Born)는 단순한 만남의 확장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보다 수평적이고 동등한 구조로 재정립해 가는 과정이었다. 프로그램 전반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공동체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갔다. 이는 ‘함께함’이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의료 담당 역할을 통해 전 참가자의 건강과 컨디션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해외 환경에서 예방 중심 관리와 현지 의료기관 연계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기후와 위생 환경,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캠프 전반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임을 현장에서 분명히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해외 프로그램 운영 시 의료 지원 체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캠프는 회복, 연결, 동등성이라는 가치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였고, 단순한 해외 활동을 넘어 공동체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현장에서 경험한 관계의 밀도와 협력의 방식은 귀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방글라데시의 현실을 주변에 전하고 귀환 이주민들과의 연대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결은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캠프에 참여하며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스태프에 가까운 역할을 맡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이 공동체와 시간을 이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남았다. 그 마음은 단순한 여행의 욕구가 아니라, 이미 이어진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공동체적 실천을 계속 이어 가고 싶다는 바람에 가깝다. 청다말 캠프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프로그램이며, 다음 캠프 역시 또 다른 만남이 아니라 이미 이어진 관계를 한 걸음 더 확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정리하며 가장 솔직하게 남는 말은 하나다.  
다시 가고 싶다. 🇰🇷



장순미장님!  
정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민희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김성-

중요한 것 같대요  
제가 있었던 시간이 제일 길었던만큼  
알아갈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바  
감사합니다. 저의 둘다 캠프 벗어나서  
만날 때는 꼭꼭 시간 모조리 비어있어  
너무 감사해요 - 강영주



장순미  
JANG SOON MI

- 4 - 리카  
2026 캠프가 즐겁기  
작 캐냈어.  
알려줘 리카  
- 2026. 1. 26. 리카 -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 J. 알림 -

You are the best.

치로 쓰사라고 기회 리카  
고이 쓰사리 오세요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  
로인하세요! - 김옥진 -

"Body & Mind Care Queen"  
평생버티는 행복의 여왕님들의  
멘탈은 똑똑한. 눈물도 그아웃  
연결원리라는 케어론 캠프가  
다들아도 든든하게 마무리 되어  
대원님 케어 선생님들 신장  
고이 감사드립니다 - 진화 -

장 대표님!  
평생에 저의 모두 보람 있어  
꼭꼭 할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 소이 -

다들아 장님 대표님!  
장님이어 뭘든 두번째로  
주요한 캠프를 함께 했어요.  
특히요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  
다들 저사리 많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합니다.



장 대표님! 아픈 증상을 가진 저희를  
잘 케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좋은 칭찬 해주셔서  
부족 나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도연-

인원 반분한분 건강 잘 챙겨서  
감사드립니다

장대표님 -소이-  
배 아픈 저를 잘 보라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빨리 나눌수 있었어요.  
아프지 마시고 이번 캠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희-

장대표님!  
다들아 우리 정현  
정말 잘 챙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

고맙습니다.  
-유-

my dear sister. Khenn  
Good Person

## 코리안 드림이 아닌, 방글라데시 드림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강명주

사람들에게 방글라데시는 어떤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내게 방글라데시는 아시아 국가 중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금융 방식)을 운영한 그라민 은행을 기획·운영했던 나라였다. 2024년 이주노동자 사망 연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주민들의 삶에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나 무지했다.

감사하게도 샬롬의 집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나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알아보려 한다거나 사전 조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기회 속에서 경험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월 다녀온 청다말 국제협력캠프는 나의 삶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통기바리라는 작은 마을은 평온함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초록빛으로 펼쳐진 밭과 나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 풍경을 따서 국기를 만들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 가공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방글라데시의 본모습에 가까우리라 생각했다. 곳곳에서 택시(삼륜차 교통수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마을의 풍경은 우리네 삶과 다를 바 없었다. 감자밭과 겨자꽃이 나부끼고, 연못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새들과 동물들은 우리를 환대하는 큰 현수막을 오히려 이질적인 인공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처럼 통기바리의 자연은 서울에서의 분주한 삶을 잊게 만드는 선물과도 같았다. 목적이 분명한 방문이었음에도, 마을에 들어서면 순간 나는 ‘최빈국’이라는 이미지를 잠시 잊은 채 그 공간이 주는 충만함과 따스함을 온전히 누렸다.

다음으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내 환대하며 보호해주던 KBFS 스태프들이다. 이들은 마석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라는 배경지식이 없다면, 일정 내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보호자이자 보디가드가 가까운 존재였다. 이들의 환대의 동력은 무엇이였을까.



‘한국의 날’ 곳곳에 붙어 있던 이들의 젊은 시절 사진 속에서, 각자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던 그들의 눈부신 청춘을 보았다. 그들이 한국에서 누렸던 삶은 찬란함보다는 고단함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을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어느덧 중년이 된 스태프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한국은 사랑의 나라였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를 그토록 배려하며 사랑으로 환대했을 리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살롬의 집에서 켜켜이 쌓은 추억과 시간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전하던 이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아동 NGO에서 잠시 근무했던 내게 BPS의 역할과 사업은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다. 수많은 한국의 NGO는 종교 기반으로 운영되거나, 외원기관이 자국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발전하고 기관이 정착해 왔다. 그러나 BPS는 해외 송금 경제를 주도했던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자국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모은 단체다. 다수의 외원기관이 서방국가의 자선 모델을 기반으로 식량 배급이나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BPS는 출발의 이력부터 독특하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또한 독특했다.

한국에서 일하며 이주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운동을 하다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추방당했던 비두라는 한 사람이 BPS의 중심에 있다. 그는 함께 일하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조직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말이다. BPS는 전통적인 NGO가 수행하는 재난관리, 지역사회 개발(농·축산업), 건강관리,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택시 운전사에게 장비 대여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이자 대출(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과도한 혼수를 반대하는 운동 등 해당 지역만이 겪는 고유한 문제들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BPS는 통기바리라는 지역의 살림 문제를 도맡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기회가 된다면 이들의 조직화 과정을 사례로 연구해보고 싶을 만큼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빈민을 위해 사회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사업으로 발전해 온 사례가 있다. 아이들을 위한 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빈민을 위한 공동작업장이 자활센터로 변화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제도화 과정 속에서 각 단체는 본래 추구하던 가치와 의미를 지켜내는 데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조건, 특히 국가 역할이 거의 부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BPS가 지닌 가치와 독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업은 쉽게 고유성을 잃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들었다.

한국의 살림의 집이 BPS의 사업에 공감하고 장기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 바로 이 청다말 국제협력캠프인 듯하다. 이는 단순히 이주민의 ‘본래 삶’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살림의 집과 KBFS가 함께 BPS의 대상지인

지역사회를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이들의 살림에 귀 기울이고 작은 지원을 실천하는 일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귀한 연대다. 차별 없는 사회를 함께 꿈꾸고, 그 방식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실천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청다말 국제 협력캠프’는 벌써 7년을 넘어섰다. 캠프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두 기관의 아름다운 연대를 목격하며 공감했고, 이 공감이 향후 두 기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코리안 드림이 아닌, 방글라데시 드림을 꿈꿔본다. 





예쁘고 멋지게  
잘 마무리하셨어요  
건강하고 평안하리  
지속적 교류 기대함.  
이그호

같이 캠프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현성-

연말이 가까워져 갈수록...  
박사님이 최고였어요  
아름답습니다 :)

박사님 1주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행복하셨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

강박사님 1주일동안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결과  
보여주시길 바래요!  
-이태우-

Good morning



강명주  
KANG MYUNGJOO

Dear Dr. Kang  
비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비소를  
앞을 모듬을 보적이 많은 것 같아요  
칭찬할 국제협력캠프를 함께 해주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사진보다 심의 훨씬 예뻐합니다!  
-박현식-



박사님!  
-는 세월이 정말 순례이듯 끝나고  
저희 큰 소년 소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마무리해서 감사함  
함께이 즐거가. 사랑 받다.  
또. 내  
- 2026. 1. 26 차승기

박사님 '강명주'라는 독립변수가  
참여자들의 행동태도에 미치는  
중요한 상관관계를 입증하신  
결과는 대체 불가능한 것임  
박사님이 보여주시는 큰 사랑의  
가치에 캠프 기간 동안의 태도는  
영원한 reference가 될 것입니다  
Respect! -차승기-

박사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많이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있고 좋은 연구 많이 하시세요!  
-도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J.아리-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든든합니다.  
-윤진우-

◆ 참가자 소감

Part 2. 흔들리며 건너다

[청 년]

## 또 타고 싶은 배

청년스텝  
강현성

저는 사실 이번 캠프에 참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다말 캠프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도 그저 ‘그런 캠프가 있구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집 국장님과 제 어머니께서 집에만 있기보다 바깥으로 나가 다양한 세상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제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권해 주셨고, 그 조언에 이끌려 얼떨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발 전날까지도 기대나 설렘보다는 ‘시간이 어떻게 해야 빨리 갈까’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첫날, 인생 처음으로 경유편을 타고 방글라데시 통기바리에 있는 비두 바이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긴 이동으로 몸도 마음도 쉽게 적응되지 않았고, 솔직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캠프 일정 속에서 몇 가지 신기하고 기분 좋은, 오래 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3일 차 초등학교 인근 시장 공터에서 진행된 어린이 운동회 보조 활동이었습니다. 학생 이후로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활발함과 에너지를 가까이에서 보며, 제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활력이 사라졌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때의 순수한 감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다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스텝으로서 아이들의 움직임에 돕고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맡으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일 차 한국의 날 행사 막바지 문화교류 공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방글라데시에 오기 전부터 5일 차 일정이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미 세계는 학생 때의 활발함과 열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청년·청소년 단원분들이 세계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 주셨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부족한 공연이었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마쳐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긴장감, 안도감, 그리고 함께 해냈다는 감정이 지금 와서는 더 소중하게 남아, 개인적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일 차에 배를 타고 도하르로 이동했던 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배 타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좋은 날씨 속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배 안의 작은 조리 공간에서 샤킬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던 장면은 지금 떠올려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기억입니다. 낯선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나눈 순간들이 인상적으로 남아서인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또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거나,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할 때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캠프 단원들이 단순히 낯설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평생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우리와 사진을 남기려는 것처럼 느껴져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누군가는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할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 역시 많은 것을 느꼈고, 그분들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단순히 '부족하다'거나 '불리하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 시야가 조금은 넓어졌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거치며, 나중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이곳에 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해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녀온 기간이 짧아 아직 제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짧은 경험이 제 안에 이전과는 다른 질문들을 남겼고, 언젠가 다시 한 번 이곳에 와서 그 질문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온다면 통기바리에서 도하르로 가던 그 배도, 꼭 한 번 다시 타고 싶습니다. 그때가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이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한 선생님께  
감사. 귀국  
잘 다녀오라  
건강해  
이런



강현성  
KANG HYUN SUNG

사랑한다.  
더이상. 아녀  
절대리 양은 선다.  
관하리 양.

-영가-

정년복 잘 챙겨서  
정년복 양이 너무 귀여운  
귀엽다. 잘 함께 지내  
자도 정년복에서 감사해요  
모 잊어요! -정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주세요.  
동생들과 동갑들과 우리 애들 다? 거름을  
두루 챙겨주는 모습 너무 멋있었어요!  
다들 좋아하니까 우리 정년복만 마셔주세요!  
-정년-

맛있는 음식 양자 현성 만원!  
그대 다음에 이연캠프가  
꼭써 더 든든할 거예요 친구  
-정년-

현성이야  
너... 정말 단상!!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년-

수고하신 선생님께!  
역시 대한민국 무궁한 미래를 다 만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그 길에 만드는 후배인 것 같아요.  
leadership 특이한 것 같아서 가지 않...?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정년-

정년복 양이  
지금껏 본 신세에  
정년복 양이  
-정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Vernice  
Gung

프로그램 이해도  
정년복 양이 가장 높았  
다워, 정년복 양이  
소식이 없었  
최고! -정년-



정년복 양이  
정년복 양이  
-정년-

정년복 양이  
정년복 양이  
정년복 양이

우리 정년복 양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잘 챙겨주세요!  
원용주셔서 많은 의지 됐어요!  
한국 가서도 불순 잊고 보요  
안타깝게요 -정년-

정년복 양이  
수고했어요! 나중에  
방 사주세요  
제가 카톡으로  
이제

## 프레임 밖을 보다

청년스텝  
김성현

낮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언어도, 생활 방식도 아닌 곳에서 지내며 사소한 일 하나도 당연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청다말 캠프 일정에 맞춰 이동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물을 마시는 일부러 이동하는 일, 약속 시간을 맞추는 일까지 매 순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내가 평소 얼마나 편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방식 안에서만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기준들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도, 낮선 환경 속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 속에서 점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내자’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번 경험에서 제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이 얻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땐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 그리고 도움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오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깊이 새겼습니다.



팀원들과 함께하며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막막하기도 했고, 작은 성공에 다 함께 환호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빈틈을 배려로 채우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협력이란 각자의 우수함이 아닌 공동의 인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하며 시야를 튼 점만으로도 이번 청다말 캠프는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의 고민과 변화가 제게는 더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익숙한 방식 안에 머물러 있던 제 시선을 조금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 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남기는 경험.  
청다말 캠프는 세계 그런 자리였습니다. 🏰





## 봉사를 한 게 아니라 받고 온 느낌

청년스텝  
김도연

캠프를 다녀오기 전까지 방글라데시에 대한 내 생각은 솔직히 단순했다. ‘가난한 나라에 가는 봉사활동’이라는 이미지가 전부였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은근히 낮춰보는 시선이 있다. 나 역시 그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이주노동자가 많이 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이는 대부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였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동경하고, 동남아시아를 동정하는 것 역시 인터넷 속 환상에 익숙해진 결과일 뿐이었다. 방글라데시에 직접 다녀와 보니, 오히려 내가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받고 온 느낌이 더 컸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묘했다. 다카의 야경은 복잡하고 정신없을 만큼 바빴고, 어딘가 경성 시절 서울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반대로 통기바리라는 시골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농경사회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나라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확실히 느꼈다.



7박 9일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딜 가든 환하게 웃는 아이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따뜻한 음식들, 말은 통하지 않는데도 서로 웃으며 사인을 해 달라거나 사진을 찍자고 몰려오던 사람들까지, 한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장면들이 이어졌다. 우리가 어설프게 준비한 춤과 노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던 미술 수업,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활동 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거... 우리가 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봉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방글라데시는 내게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남았다. 전체적으로 느낀 분위기는 198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지금보다 어렵지만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 말이다. 너무 빠르고, 개인주의적이며, 항상 경쟁에 내몰리는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많이 달랐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떠올랐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을 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문화나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를 보며 조금 느리게 가는 법, 무한 경쟁이 아닌 WIN-WIN으로 함께 가는 사회의 모습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이주민 문제도 비슷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계하던 대상을 실제로 만나고 나면, 편견이나 오해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집단에는 동성애자, 중국인, 이주노동자 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기사나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살아보는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번 캠프는 나에게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게 해 준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가 나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움직이고 싶다. 이 귀한 경험을 만들어 주신 캠프 관계자분들과 신부님, 그리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서 애써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돌아온 지금에서야, 이 여행이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받고 돌아왔다. 🙏



♡ 도연!  
힘들었지. 사심하고  
이상하고. 잘 전해주서  
감사. 존중한다!  
이정현

멋진 도연님  
공명 멋졌어요.  
한국에서도 '내-이,  
그냥이

청년부 대신 도연아~  
마음에 내 도다리 뽕이였어~  
한국 가세도 만나자!  
연락하자, 수고했어!  
-정경-



김도연  
KIM DOYEON

늘 밝은 에너지와 웃음 주면  
도연씨! 지구까지도 캠프에 참여  
하는 모습 보여 주게 더 배우는  
서장이었어. 아드나리 꿈을 응원  
한다 -김영주

안녕하세요 벨류가 새  
캠프 참여하는게 여간 쉬지 않았  
을텐데 그세태까지도 감동이야. 여  
'테디베어' 닮았어! 인  
사랑스러운 여대, 뽕뽕  
뽕뽕 뽕뽕 해주 멋진  
-진희정

캠프 기간동안 고생 많았고,  
후 잘 추어라.  
공명 준비 열심히 해서  
고맙다.  
-정경-

청년은 그 언제든 -윤-  
우리가 예상한 모든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보여줍니다.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같은 과정에서 때로 같이 활동하며  
잘 동기화해서 감사합니다.  
한국 가세도 기대합니다!  
(도연님도 벨류가 활동하셨어요.)  
-소아-

항상 밝은 마음으로 마도르  
의치영을 청년부 대신 도연씨  
(도연씨...)  
함께한 지난 9년간의  
추억을 가지 감사합니다  
-박정희

청년부 응원!  
친근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한국 가세도 좋은 인연 이어갈~  
-성민-

KOREA-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청소년다문화기합을잡다  
CHEONG-DA-MAL 국제협력캠프



저 되게 어리바리하고 좀  
떨떨했는데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정말 재밌었고 벨류가대  
원리고 즐거웠어요! -혜민

출시 축하와 도연씨.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고 정말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1주일 동안 쉬고 만났어요!  
-정현-

소아님  
4로써  
모름 보이 좋음, 건강간  
-강욱현-

소고함어우 -  
-정현-

##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우리가 만났고, 나는 그곳에서 세계를 배웠다.

청년스텝  
김현경

우리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했을까?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말하네, 어디서, 어떻게 배웠을까?  
나는 왜 그들이 낯설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의 특수한 시간선에서 시작된다. 그 시간선은 한때 마석의 가구 공장을 지나,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이어져 있었다.

### # 다녀오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타국으로 향한다는 것은 어떤 심정일까.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돈을 벌어오겠다는 자식의 고집을 부모는 이기지 못했고, 그 아들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의 두려움 또한 그만큼 깊었으리라. 한국에 도착한 아들은 마석 가구단지 에 짐을 풀었다. 좁은 방에서 동료들과 부대끼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며 살았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대받고 착취당했다. 정부는 그들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쫓아내려 온 힘을 다했고, 동료들이 하나둘 잡혀가는 공포 속에서도 가구 공장의 기계는 비정하게 돌아갔다. 그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 나라에 말할 권리가 있다!”**

그 절박한 한마디는 마석의 차가운 공기를 데웠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그에게 돌려준 대답은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었다. 그저 내 말을 들어달라고,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였을까. 그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국은 귀를 닫았고, 결국 그는 강제 추방당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본국으로 돌아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그는 본국에서도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갇혔다. 갇히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부모의 시선이었다. 돈 벌러 간 아들이 '테러범'이 되어 돌아온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부모의 무너진 가슴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낸 그의 아버지는 작년까지 생존해 계셨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온 단원들이 떠날 때마다 항상 "잘 다녀오거라"라는 인사를 건네셨다고 한다. 당신의 아들을 '테러리스트'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았던 나라에서 온 청년들에게, 아버지는 월망 대신 무사 안녕을 비는 축복을 건넸다. 그것은 자식을 사지로 보냈던 아버지의 참회이자, 상처 입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대한 품이었다.

비록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가 냈던 외침과 아버지가 남긴 인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방글라데시의 붉은 흙 위에, 그리고 마석 가구단지의 낡은 지붕 위에서 영원히 울릴 것이다.

**“잘 다녀왔습니다.”**

### **# 시공간의 전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토종 한국인'처럼 말했다. 억양, 속도, 농담은 그들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증명했다. 익숙했고 편안했고 정겨웠다. 그들이 살았던 한국의 노동 현장과 시대를 직접 알고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그 언어는 기계 소리와 먼지, 긴 노동시간 속에서 하나의 생존 도구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한국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삶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하나의 전이였다. 한국에서 쓰이던 한국어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람을 돕는 언어가 되었다. 그들은 한국으로 일하러 떠날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때 공장에서 쓰이던 생존 도구로서의 언어가 이제는 사람을 위한 연대의 도구가 되었다.

### **# 우리가 잃어버린**

방글라데시의 공동체는 묘하게도 내가 책이나 이야기로만 들었던 '옛날 한국'의 정서와 닮아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들. 처음에는 이 정겨움이 그들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으로부터 옮겨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이것은 어디선가 옮겨온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본래부터 간직해온 그들만의 깊고 따뜻한 문화적 뿌리였다. 오히려 역설적인 것은 우리였다. 90년대 한국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들은 분명 우리의 '정'과 '연대'를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발전을 위해 그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둘 잃어버리고 속도만을 숭상하는 동안게 된 사이, 한국 사회에서 상처 입고 돌아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그 가치들을 더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내가 느낀 정겨움은 그들이 지킨 환대의 문화와 내가 그리워하던 인간미가 만난 것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놓치고 지나간 '존엄'과 '연대'라는 가치를 현재의 삶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 속에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그리고 효율보다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만의 깊은 문화를 말이다.

### # 신의 손

그들이 한국에서 만들었던 가구들은 아마 대부분 사라지거나 낡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남긴 불변의 것은 사람이었다. 공장에서 배운 끈기, 서로를 의지하는 법,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었고, 가구를 만들며 하루하루 거칠어지던 그들의 손은 이제 사람을 떠받치는 거대하고 따스한 손이 되었다. 나는 이것이 노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 #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2000년대에 태어나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한때 나와는 조금 다른 한국의 시대와 환경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지도,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방글라데시라는 낯선 공간에서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특수한 시간선이 서로를 향해 흘러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과해 온 한국의 시간을 몸에 지니고 있었고, 나는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간 이후의 한국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서로의 시간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시간은 단절이 아닌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된다. 방글라데시는 바로 그 다리가 놓인 장소였다. 나는 그 다리 위에서 발전과 속도, 가구단지 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에서 노동과 이주의 흔적이 어떻게

공동체와 연대로 바뀌는지를 목격하며, 그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을 미래의 연대로 바꾼 주체임을 깨달았다.

이 만남을 통해 나는 '도움'이 아닌 '연결'이 진짜 연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은 서로 다른 시간선을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서로 다른 시간이 한 공간에 겹쳐졌을 때, 세계란 국경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체득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대의 뜨거운 감각이었다.

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 속에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효율보다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말이다.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이들의 시간은 앞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기여를 하든, 내 수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나는 어떤 시간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번외] 모두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꺾을’ 행운이 있기를**

나는 원예생명과학을 전공하며 분자생물학과 식물생리학을 바탕으로 작물의 발달 기작을 연구하고 있다. 실험실에서의 일상은 ‘선발(Selection)’과 ‘제거’의 연속이다. CRISPR/Cas9을 통해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클로닝(Cloning)으로 원하는 형질을 삽입하고 복제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편집한다. 내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는 과학적 데이터로서 당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편집 가능한 텍스트’였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나의 이 생각을 단숨에 허물었다. 그들은 한때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불량 형질’로 낙인 찍혀 밀려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된다. 사회 시스템이 가차 없이 도려낸 상처의 자리에서, 원망이 아닌 ‘연대’라는 놀라운 형질이 발현된 것이다. 그들은 공장 단지에서 소모품처럼 다뤄졌던 과거를 증오로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양분 삼아, 그들의 본국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떠날 이들을 교육하고 이웃에게 식량을 나누는 자생적 면역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인위적인 형질전환(Transformation)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생명 본연의 강력한 복원력이었다.

방글라데시로 떠나기 전까지 나는 연구 대상인 식물의 성장점(Meristem)과 발달 기작 연구가 현실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절실히 느끼지 못했다. 이상기 후와 식량 위기는 내게 그저 너무 먼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쌀 한 포대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살아낼 용기’이자 ‘삶을 지속할 물리적 토대’가 되는 것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앞으로 실험실에서 생산성 관련 유전자를 찾아내기 위해 앉아있을 그 시간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자부심과 기대로 다가온다. 식물의 성장점에서 일어나는 작은 분열이 결국 수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대한 수확으로 이어지듯, 나의 배움 또한 누군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쓸모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이 가진 ‘편집 불가능한 존엄’을 목격했다. 최악의 인퓏(차별과 빈곤) 속에서도 최상의 아웃퓏(친절과 나눔)을 만들어내는 이 예측 불가능한 기작은, 생명이란 결코 인간의 기술로 통제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대상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생명이 가진 존엄을 식량이라는 현실적인 힘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나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을 읽어내고 위하는, 사랑이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모든 사람의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 있는 세상이 오기를,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행운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덧붙이는 글: 감사의 마음]

세 번의 해외봉사를 거치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진정한 연대는 다양한 세대의 호흡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세대의 깊은 연륜과 청소년 세대의 가능성을 그 사이 성장의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유연하게 이어주는 이 독특한 참여자 구조는, 현지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현지의 가정에 초대받아 마주했던 밥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식구(食口)'라는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봉사지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이 온 가족의 환대는 세계 가장 구체적인 감사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청다말 6기에 참여한 동생 김영민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현지의 가족들을 마주한 경험은, 단순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교류였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청다말 캠프의 목적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주신 비두바이, 애플바이, 하빕바이를 비롯한 KBFS의 모든 '바이'들, 당신들의 역사와 행동 그리고 강인함과 한없는 친절은 저에게 큰 배움이자 감동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열어 주신 샬롬의 집 이정호 신부님과 윤진규 국장님, 알럼바이, 전효숙 팀장님, 전문가 단원님들, 함께 춤추고 웃고 땀 흘린 청년·청소년 단원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와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자, 보르노, 샤리프, 그리고 후마이라!  
언젠가 한국에 오면 끝내주는 하루를 만들어주마. 기대해라.

아바르 데카 호베! **আবার দেখা হবে** (Abar dekha hobe) 🇧🇩









2025  
YOUTH STAFF  
김현경

SOYKT  
2025

SOYKT  
2025

SOYKT  
2025

◆ 참가자 소감

Part 3.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보다

[청소년]

## 부모가 걸어온 길 위에서

청소년단원  
이태우

### 엄마가 먼저 다녀온 자리

“너희 엄마 방글라데시 캠프에 가신다.”

2025년 1월 초, 국장님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묘했다. 왜인지 모르게 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박자 늦게 듣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전했고, 이후 현장에서 어머니가 매우 성실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나 역시 언젠가는 다른 나라의 현장에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양주 오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샬롬의 집 공동체의 일원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자라왔다. 지난 청다말 6기에서 베트남 전문가 스태프로 참여했던 김미진 님이 나의 어머니다. 외교 분야에 관심이 있는 나에게, 어머니의 해외 활동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진로와도 맞닿아 있는 현실로 느껴졌다. 힘들지만 지루하지 않은 여정,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어머니의 모습은 분명한 동기와 목표가 되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겠다’고 생각했다.

## 내가 서 있던 자리

2025년 말부터 청다말 7기 준비 소식이 들렸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번에도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다 12월 말, 아버지에게서 “너 해외 가고 싶다고?”라는 전화를 받았고, 나는 솔직하게 “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 순간, 나에게서는 멀게만 느껴지던 기회가 실제 선택이 되었다.

참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태희 이모와 띠 삼촌이 후원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자리가 나 혼자 만든 기회가 아니라 여러 어른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원의 밤에서 ‘청소년 참가자’로 정식으로 소개되었을 때는 처음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실감났고,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졌다.

이전 기수에서 활동했던 어머니의 이름과 기대까지 함께 안고 현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부담이기도 했고, 동시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이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어머니보다 잘해보겠다”는 말을 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방학 동안 샬롬의 집을 오가며 여권과 개인정보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분류하고,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받으러 다녔다. 첫 방문에서는 절차 문제로 되돌아와야 했고, 다시 찾아가 겨우 발급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해외 프로그램은 개인의 열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누군가는 현장에 설 수 있었다.

청소년 대표를 맡아 공연 곡을 정하고 연습 일정을 조율했지만, 개인적인 준비는 충분하지 못했다. 물품은 급하게 챙겼고, 현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출발 직전에야 시작되었다. ‘갈 준비’는 했지만, ‘서 있을 준비’까지는 아니었다.



## 내가 마주한 자리

명랑운동회 때는 춤 대결에 나갔지만, 막상 앞으로 나가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한국의 날 공연 때도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사실 청소년 대표로서 뚜렷하게 해낸 일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정현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적극적이고 뛰어난 잘하는 것 같은 정현이와 금세 친해졌고, 많이 의지가 되었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숙소 가까운 곳의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해외로 떠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샬롬의 집에서 가끔 마주치던, 나에게는 ‘아는 삼촌’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 때 이곳을 떠났고, 아주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자라서 가끔 어머니의 나라인 베트남을 오가기도 했기에, 그동안 ‘해외에 나간다’라는 일을 하나의 선택처럼 조금은 가볍게 생각해 온 편이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삶의 중요한 것들을 오래 미뤄두거나 때론 아예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한참을 울었다. 이주 노동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의 삶에 남기는 무게를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 이후 ‘해외에 나간다’라는 말을 예전처럼 가볍게 하지 않게 되었다.

## 부모의 배품,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처음에는 ‘어머니보다 잘하겠다’라는 말을 되뇌며 현장에 섰다. 하지만 실제의 나는 말로 다짐했던 만큼 성실하지도, 능숙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 그리고 배품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를 겪으며 ‘부모가 준 배품이 자식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현장에서 쌓아온 관계와 신뢰 덕분에,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돌아보니, 내가 내디딘 첫걸음은 이미 부모가 걸어온 길 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중학생 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갖게 되었다. 이후 샬롬의 집 활동을 통해 외교관과 민간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번 청다말 7기 캠프를 통해 NGO의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국제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마음속에 생겼다. 기존에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조금 더 넓어졌다.



부모가 걸어온 길 위에서 나는 이제 막 한 걸음을 뗐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멋있어 보이는 길’만 고르지는 못할 것 같다. 누군가의 삶을 조금은 더 생각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리고 내가 서있던 자리의 무게를 잊지 않는 방향으로, 나는 내 길을 천천히 정해가며 걸어보려고 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인강, 수행평가, EBS 문제집이고, 프린트할 게 생기면 또 샬롬의 집에 가서 출력부터 해야 하는 본격적인 고3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번 캠프 이후로는 내가 서게 될 자리를 예전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의 집에서 울었던 기억, 무대 앞에서 떨똥히 서 있던 기억, 옆에 누군가가 있어 겨우 버텼던 기억을 가지고, 나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음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모가 걸어온 길 위에서 걷는 내 발걸음은 아직 많이 서툴다.

하지만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걷지는 않게 되었다. 🏠



살롱의집 후제가  
좋아 좋아 아곡 좋아.  
많이 수고했어.

새로운 랑 신의산  
태우 감 수감  
너희 한가지서도 지후려 령  
- 기영이

재영!!  
태우야 하나나!!  
태우 재영!!  
재영재영재영재영!!  
- 기영이



이 태 우  
LEE TAEWOO

NI이대강 태우씨!  
재기성 많은 랑. 너우 귀여워요 :)  
세상을 여행하러 가는 것만 NI이대강  
가 두리 응원하러요 - 강영주

태우야  
고생했다.  
-정영-

우리 태우씨래 새로운 3기영 >>>  
차별이 다른 태우  
후유회로 여권소말아 활동해 주어야  
건강하게 한국 가자요 - 전영향  
청소년 대표로서  
괴행 맞을것입니다.  
-소이-

태우야  
कुदा 빨리 가라  
너의 12시간 꿈은  
응원 해 기!  
-정영-

사랑하는 나의 청년 이태우 씨!  
정다운 귀여운 태우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생각을 같이, 다른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신의 내면속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외면 승리하는  
용감한 이태우 청년의 모습을 나는 힘든 티 안 내고  
확실히 잊어오기 되고 찍어낸  
캠프 끝까지 함께하며서 고이워  
한국 가서 좋은 인연 이어가요~  
-성민-



조야  
조야  
관했다.  
다 잘해라.  
고생아.  
-YUN-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 김알리

태우(영아) 감상은  
너와 흥분했다.  
정말 재미있고  
고생했어 - 해원  
가대했다.  
태우야 너가 있어서 재미있다  
청소년 단원님 수고 많이요~  
-도연-

## 그 일주일, 알게 된 것들

청소년단원  
김해인

원래 나는 방글라데시에 갈 마음이 없었다. 아빠가 말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면서 계속 권하길래, 나도 모르게 설득돼서 가게 됐다. 처음엔 그냥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봉사활동’ 같아서 가는 거였다.

그런데 샬롬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화장 이상하게 하고 온 중학생인 나한테도 방글라데시 분들은 되게 친절했다. 낯선 애한테까지 웃으면서 대해주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도 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1월 19일 공항에서 본 첫 풍경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나?”

방글라데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힘들고 졸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상 쓰고 있었는데도 호기심 많은 눈으로 다가와 사진을 찍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타자마자 진짜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한국에서 떠올리던 공항 주변 풍경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달랐다. 늦은 밤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냥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보였다.

버스를 타고 갈수록 ‘도시’라고 부르기에 점점 부실해 보이는 풍경들만 이어졌다. 간판은 떨어져 가고 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노숙자도 자주 보였다. 한국에서는 노숙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더 낯설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진짜 시골 같았다.

나무는 울창한데 가로등이 거의 없어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 걸어야 했다.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커다란 저택 같은 곳이었고, 다들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피곤했는데 그 친절 때문에 조금 풀렸다.



## 1월 20일 시장 한복판

아침 식사는 난, 달걀, 커리였다. 한국에서는 절대 아침으로 안 먹을 메뉴였겠지만, 나는 빵이랑 달걀을 좋아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 솔직히 또 먹고 싶다.

아침을 먹고 바기아 바자 센터에 가기 위해 시장가를 지나갔다. 문도 없고 벽도 허름했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리 같았다. 센터에 도착해 식량을 나눠주었다. 이곳은 바기아 바자 한복판에 있는 BPS의 사무실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생선을 파는 거리가 있었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래도 생선은 싱싱해 보였다. 그곳에서 눈 한쪽이 안 보이는 여성분을 만났는데, 작년에 샬롬의 집에서 식량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다.

## 1월 21일 꽃을 받다, 아이들을 만나다

전날 초등학교를 잠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를 엄청 신기해했다. ‘고작 이런 거에 환영하고 신기해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 짐작한 거였다.





다시 방문하자 아이들이 꽃을 주고 꽃잎을 뿌려줬다. 연예인 된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다.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해주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잘해서 내가 할 게 없을 정도였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정말 똑똑했고 주변 친구들을 잘 챙겼다. 나도 괜히 챙겨주고 싶었고, 솔직히 부러웠다. 우리 학교에도 저런 애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술과 음악이라는 과목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그냥 “공부 안 해서 좋은 시간” 정도로 느껴지는 과목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인상 깊었다.

아이들이 맨발로 전통 춤을 추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 같은 ‘케이팝·김치나라 사람들’을 위해 몇 주 동안 연습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다. 내가 핸드폰을 가진 이후로 찍은 사진들보다 이 며칠 동안 찍은 사진이 더 많은 것 같다. 필터 끼고 찍고, 학부모들, 학교 안 밖에서 만난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하게 찍었다.

## 1월 22일 “이런 데서 공부한다고?”

이 날은 말 그대로 관중 도파민 채우는 날이었다. 고등학교에 가서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학교 건물이 정말 놀라웠다. 전교생이 동시에 뛰면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페인트는 벗겨지고 교실에는 조명도 거의 없고 칠판은 끼익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벽과 바닥은 거친 콘크리트였고 나무 책상과 의자가 끝이었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신기했다. 한편으로는 저런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단하고 짱했다. 근데 학생들 성격은 한국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인기 많은 남자애들, 기 센 여자애들... 다 똑같았다. 여기 애들이 유난히 어려 보이기도 했다. 중1, 2처럼 보이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놀랐다. 눈이 커서 그런가 보다. 부럽다.

여기서도 사진을 엄청 찍었다. 솔직히 왜 나 같은 애랑 찍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본인들이 훨씬 예쁜데.

## 1월 23일 사람이 몰린 점심, 그리고 공연

며칠 전부터 앓던 몸살이 조금 나아졌다. 공연이 있는 날이었는데 다행이었다. 다들 ‘한국의 날’ 점심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나는 거의 놀고 자다가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다.

고작 점심을 나눠주는 건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생각해보면, 못생긴 연예인들이라도 공짜 밥 준다고 하면 나라도 갈 것 같다.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려니 긴장됐고, 실수할까 봐 걱정됐다. 앞에 공연한 분들이 너무 잘해서 더 부담됐다. 그래도 행사는 무사히 끝났다.

## 1월 24일 배 타고 간 마을, 씻을 곳도 없는 아이들

아침부터 배를 4시간이나 타고 도하르로 갔다. 이날은 노비하르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었다. 통기바리보다 더 시골 같았고, 약간 다른 문명에 온 느낌이었다. 나무들이 울창했고 소똥을 비료로 써 길에 자주 보였고, 개랑 고양이도 많았는데 피부병이나 종양이 있는 애들도 많았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 모두들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다. 근데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가 해준 건 별로 없고, 점심만 먹고 나온 느낌이라 좀 미안했다.



여자아이들 마드라사를 방문해 칫솔을 나눠줬다. 시설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비가 새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에 조명도 거의 없고, 좁은 화장실 하나를 많은 아이들이 같이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있었다면 마당이라도 청소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이후 협력단체인 SAMS-92를 방문했다. 꽃목걸이도 걸어주고 정말 환영해줬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우리 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다. 그날은 새벽까지 일정이 이어졌다. 힘들고 졸렸지만 가정 방문 일정까지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사진을 다른 날보다 적게 찍어서 좀 아쉬웠다.

### 1월 25일 수도 다카의 얼굴

다카로 이동했다. 다카는 통기바리나 도하르와는 완전히 달랐다. 건물은 여전히 부실해 보였지만 훨씬 뽀뽀하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꽃을 내밀었는데 강매 구걸이었다. 눈을 돌리면 노숙자가 보이고, 또 눈을 돌리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수도인데도 이렇게 빈곤층이 많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날 배탈이 심해서 다들 버거킹을 먹을 때 나는 물만 마셨다. 한국에 돌아가면 꼭 롱치킨버거를 먹겠다고 다짐했다. (근데 단종됐다.)

교회에 가서 정말 긴 설교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뜻깊어 보였다. 숙소로 돌아와 최종 소감을 나눴고, 그때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첫 문장부터 아빠인 걸 알았다. 쓸데없는 말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 놀고 떼쓰는 딸로 시작해서 오타쿠 딸로 끝나는 편지였다. 웃기면서도 고마웠다.

## 1월 26~27일 떠나는 공항의 풍경

여전히 배탈이 있어서 초등학교 봉사에는 참여를 못 하고 혼자 쉬었다. 조금 팬찮아진 뒤에는 상업지역을 구경했다. 번듯해 보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볼 건 별로 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진짜 떠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공항은 여전히 분잡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새벽에도 있었다.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다시 떠올랐다. 비행기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잠들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18시간을 내리 잤다.

## 1월 28일 다시 내 방, 다시 일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학원 가고 공부하고 놀고... 방글라데시의 기억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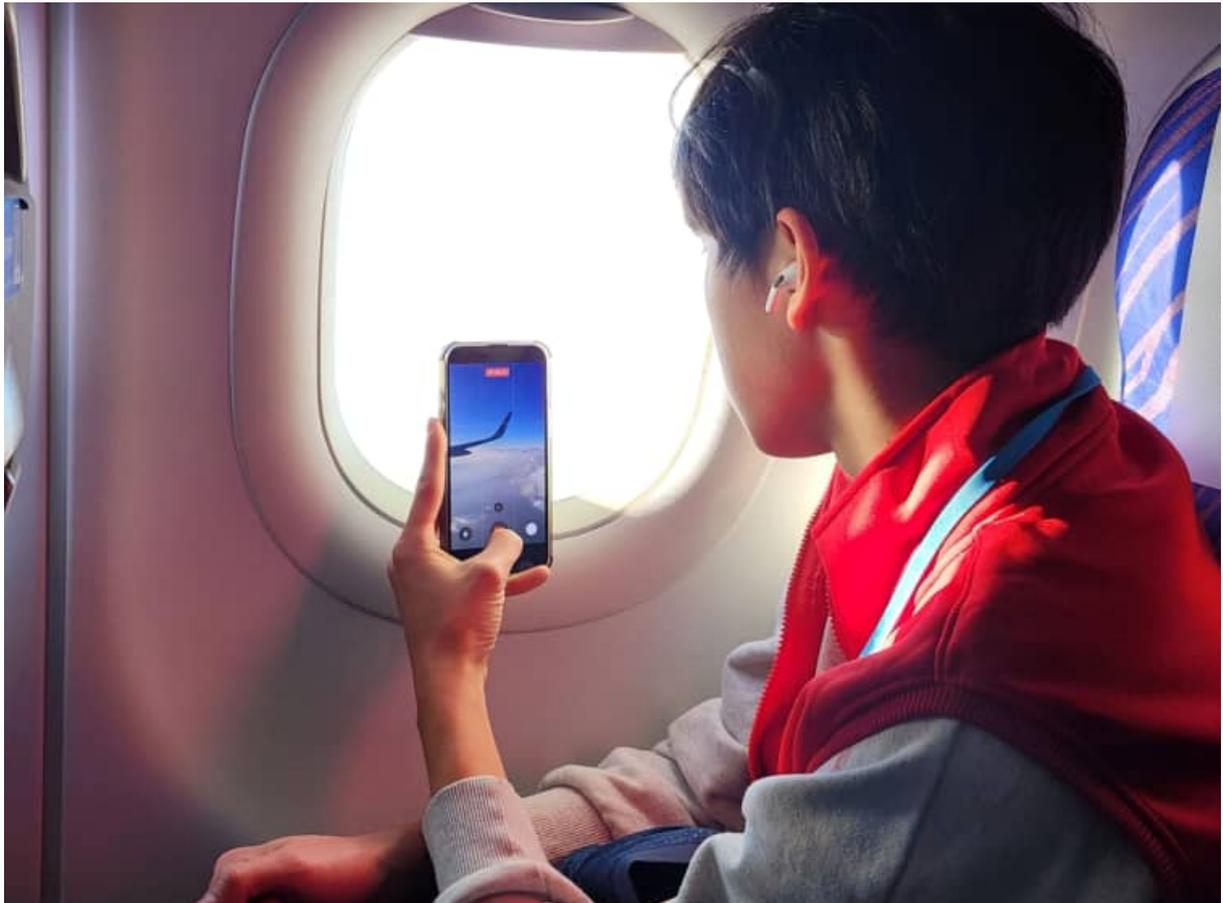
그래도 이렇게 전등이 멀쩡한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을 내 또래를 떠올리게 된다. 나는 그 일주일 일을 추억으로 남기겠지만, 그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다. 그 일주일이 힘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엄청 힘들지는 않았고 그래서 더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

살롬의 집 봉사자들을 잘 챙겨준 방글라데시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버리하고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작은 나를 끝까지 챙겨준 살롬의 집 봉사자분들께 진짜 감사하다. 🙏



## 함께 웃고 시간을 나누는 것

청소년단원  
김정현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된 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는 내게 처음 경험해보는 해외 봉사활동이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환경정화 활동 위주의 봉사만 해왔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활동은 낯설고 긴장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도 컸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게 되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낮섬이었다. 거리의 풍경, 공기,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달랐다. 그러나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현지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은 그 낮섬을 조금씩 설렘으로 바꾸어 주었다.



노약자와 장애인분들께 음식을 전달하는 ‘푸드 포 라이프(Food for Life)’ 캠페인에 참여하며 봉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크지 않은 나눔이었지만, 두 손으로 음식을 받아 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에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느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에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시간이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땀을 흘리던 순간, ‘내가 지금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도움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캠ป์ 후반에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모든 일정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낯선 나라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속상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준 팀원들과 선생님들, 현지 관계자들의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알럼 바이가 밤새 병원에 함께 남아 보호자처럼 곁을 지켜준 덕분에, 낯선 공간에서도 마음이 놓였다.

봉사는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건강의 소중함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번 방글라데시 봉사는 내게 단순한 해외 활동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비록 몸이 아파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경험 자체가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배운 따뜻함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시간을 나누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아프지 말고.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힘의 힘으로도  
 한국에서 송승장군하길 써  
 -도연-

Good Good  
 정현아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미래의 아이들 소리...  
 가끔 보러가  
 -강순이-

진짜 고생하셔지만  
 특별한 CAMP였어.  
 앞으로 더 나은  
 가랑 안나. 신부님

고생했어 내 동생  
 한국이면 예뻐할 사람에 ~  
 나나도  
 나나도 해방...  
 미안하게 아파서 너무 고생했던  
 자라게 해줘야만 꼭 건강하게  
 영남이 좋다면 내일은  
 가랑해서 만수 무어 아랑가게  
 -김민우-



김정현  
 KIM JUNG HYUN

아프지 마라!!  
 눈앞수 있어 ~ ~ ~  
 그 blossom 아이다 친구랑  
 말해보고...! 한국 가서 또  
 만나! -현영-

정현아 고생했다.  
 다음에 또 보자.  
 -현성-

하사한 운동이 예전 가득한 정현군  
 아운가득 잘 활동해주시어 되어서  
 고맙습니다... 용사님 우리 같이  
 맛난 맛집 같이 다들 행복하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 -현영-

고생했고 아프지 마세요  
 -하인-

정현아! 멋진 김정은 씨에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 -현영-

고생하셨어! 이젠 타인에 대한  
 걱정과 배려를 생각해 해 주는 청년을  
 많이 있었어요. (32년 軍生活기간 동안...)  
 누릴대 이젠 좋은 수업을 보내면서 이젠  
 건강관리 우리 김정은 씨를 믿고 우리 대원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주세요. -박준석 대령-



나중에도  
 -정현-

한국 돌아와서  
 건강 관리를 사야지서서 다함있어서  
 문화교육 공민준비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의-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 ~  
 J. 알리

나나 나나 다 잘했어.  
 고생 마영이랑고. 앞으로는  
 아프지 마렴 -이레우-

태우랑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으로도  
 고대는 최고였.....  
 고맙다. 잘했다! -Yun-

## 청소년, 다문화의 말을 듣다.

청소년단원  
윤소이

### #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낼 때를 떠올려 본다. 상영 중에는 스크린 속 세상에 몰입하며 일상엔 잠시 잊고, 다른 세상에 초대받은 감상을 즐긴다. 그러나 그 시간은 딱 상영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상영관을 나오면 방금까지 받았던 감동은 금세 흐릿해지고, 그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런 기억만 남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다른 세상에서 받은 감상을 일상으로 돌아와서까지 오래 지니고 있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일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서운함조차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는 함께하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오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동안 덜컥 겁이 났다. 청다말 캠프에서 보낸 시간도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보낸 시간을 영화의 상영시간처럼 취급하고 싶지 않았다.

다큐멘터리보다 판타지에 보다 쉽게 몰입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실과 더 동떨어져 있는 쪽은 판타지 장르인데도 말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판타지 장르가 주류가 된다. 다큐멘터리나 논픽션이라고 하면, 마치 공부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보고 나면 감상문이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으며, 형편없는 생각은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반면 허구의 이야기는 무척 편리하다. 언제든 발을 들일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떼어놓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의 일상, 내가 사는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으므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도 지지 않는다.

청다말 캠프를 좋은 기회 삼아 캠프 전후 방글라데시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곳의 무엇 하나 픽션인 것은 없었다. 단순히 국가 간의 멀고 먼 거리나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현실과 픽션의 경계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서 현실을 살기 위해 그만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





논픽션이라는 이름이 청소년에게 있어 부담을 주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면, 논픽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현실을 대하는 시선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의 논픽션은 한국의 청소년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답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현실을 스크린 속 세상으로 치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영시간이 끝났을 때 지녀야 할 것은 지루함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연결감이어야 한다.

## # দুঃখিত (Duhkhita)

캠프 활동을 위해 배부받은 물품들은 모두 각각 나름의 도움이 되어주었다. 난생처음 벵골어를 입 밖에 낼 수 있게 해준 명찰 뒷면의 벵골어 사전은 특히 유용했다. 앓살라 말라이쿰. 돈노바드.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묻고 반대로 내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중에서도 매번 사전을 보지 않고도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감사 인사였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하면 좋았을걸’하고 미련이 남는 말이 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워크북에도 명찰의 뒷면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दुःखित** (Duḥkhita) 독히또.

그 말이 그렇게 필요했나? 그런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내게 있었나? 돌이켜 보면—다행히도— 사과해야만 할 일을 만든 적은 없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뱅글어 사전으로 향했다. 나도 모르게 없는 말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무엇이 이런 미련을 남긴 걸까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신세를 진 데에 대해 죄송함이 있는 듯하다. 찻잔하게도 감사함의 뒤를 밟는 것은 죄송함이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았던 탓이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늘 살펴봐 주셨던 분들이 있었다. 일일이 이름을 말하기도 버거운 것이, 감사한 분들의 이름이 경을 읊을 수 있을 수준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인 게 얼마나 초라한가. 이런 일이 또 얼마나 죄송한가.

하면 다시 돌아간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건넬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은 영 싱겁기만 하다. 그럼에도 나는 아마 ‘죄송합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할 것이다. 언어를 막론하고 ‘미안해’라는 말보다는 ‘고마워’라는 말이 한결 듣기 편하다. 감사하다는 말로 티끌 같은 죄송함마저 다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 청소년, 다문화의 말을 듣다

청소년 단원으로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다. 땀진 한 푼 없고 영어도 겨우 하는 미성년자가 한국 땅을 벗어나 무슨 힘이 있을까? 국제 미아나 되지 않도록 공항에서, 현지에서 전문가분들의 뒤통무니를 잘 쫓아다니는 것 만으로도 벅찼다.

어쩌다 인파에 휩쓸려 일행과 거리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단체복으로 받은 빨간 조끼였다. 부러 무시하려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강렬한 빨간색. 잠깐 당황하는 순간이 생겨도 시야 어딘가에 항상 KBFS, 샬롬의 집이라는 든든한 문구와 빨간 조끼가 보이면 마음이 놓였다. 덕분에 지나간 활동 내내 길을 잃는 일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단체복 빨간 조끼는 내게 그런 의미였다. 보이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대상. 낯선 타국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표식. 한국 땅을 밟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이 그런 ‘빨간 조끼’가 되어주고 있을까.

하고픈 말이 있어도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는 사람. 낯선 환경 속에서 바라보고  
쫓아갈 대상이 필요한 사람. 비단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안심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 외국인이라는 이름으  
로 불안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현지 분들에게 특히 감사했던 일 중 하나는,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었던 순간들이었다.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먼저  
대화를 시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앞  
으로도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본격적인 캠프 활동을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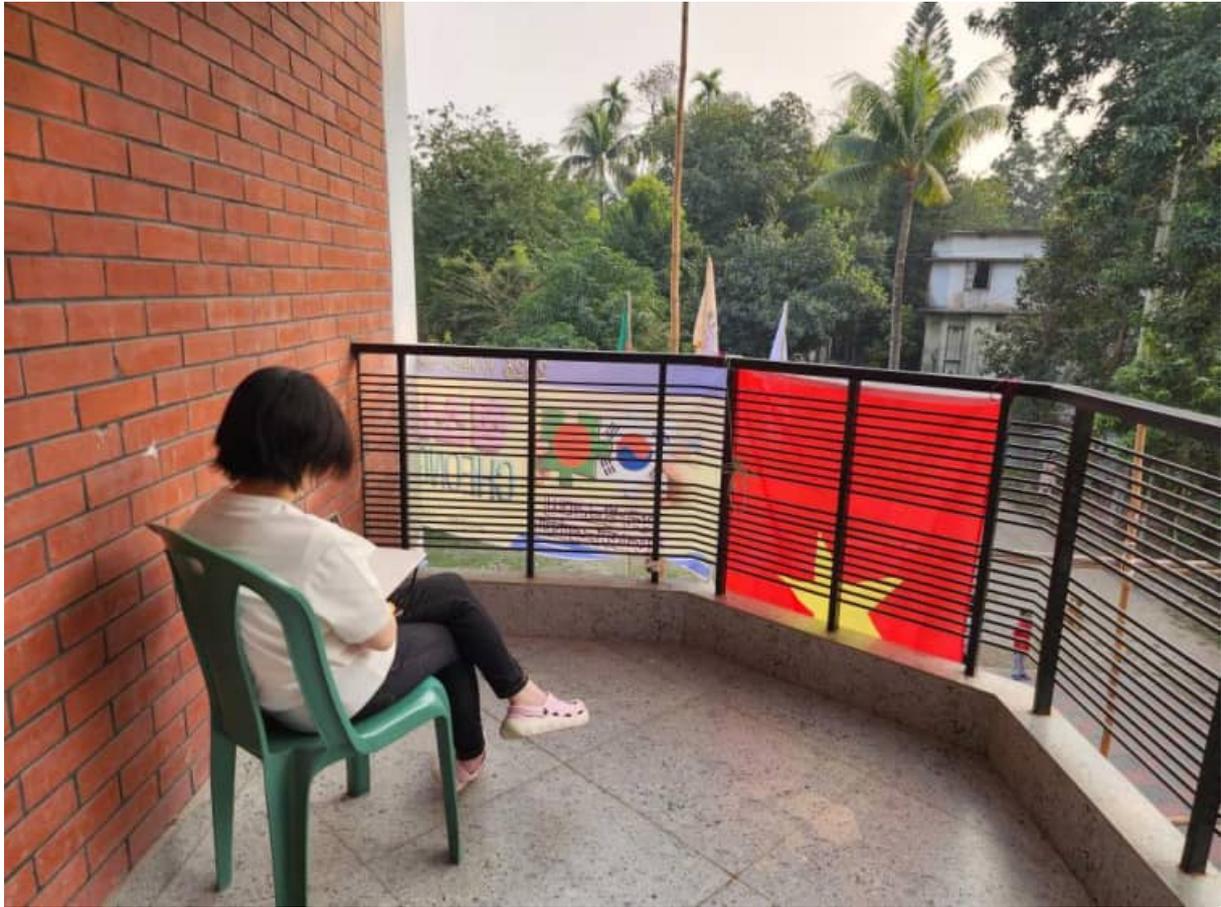
**‘다문화에 말을 걸라니, 무슨 말을 어떻게 걸라는 걸까.’**

한편으로는 무엇 하나 말 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내가, 그만큼 배경지식이 부족  
한 것은 아닌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차라리 짐이나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막상 직접 방글라데시에 가보면 가서의 경험이 있겠지. 결국엔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얌전히 보고, 듣고, 읽는 시각과 태도를  
가지기로.

돌고 돌아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내린 결론은, 이상하게도 꽤 정답에 가까웠다. 들  
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 다음에 이어질 말을 건네지 않을 리가 없다. 들은 바를  
잊지 않고 싶어졌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말을 걸고 싶어졌다. 🇰🇷

-----

한국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다문화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귀여운 노이너 - 노이너의  
매력적에 꼭 바지는 캠프였어!  
노이너만의 소중한 꿈을 응원할게!  
-강연주

마지막이지만 늘어난  
소외되어. 장하다!  
이정호

"꼭꼭꼭"  
기대한다.

크레텔 노이야~  
인원이 같아 너는...  
좋은 작가가 되었으면  
꼭 읽어! 응원하네!  
정호



윤 소 이  
YUN SOI

소이야~! 어떤 여러 어린이도  
의정호한테 받았는지! 아버지한테서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카카  
고생받았어 우리 한국에서 만나자!  
-도연-

저번에 열심히 개국해서  
감사해요! 진짜 똑똑하세요!  
"이제 우리..."

어떤 그라도 있고 2월 28일  
수업관련지 읽고 싶은 우리아이들  
테라스에서 사색하고 독서하며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드라마고 20대 영웅에 비견하는  
제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다  
소이 딸이랑 함께 여행할게요  
-정원장-

좋은 기억이  
되게 해줘요. 꼭 기억해요.  
캠프 내 추억이요!

가사 외우느라 고생했어요!  
이렇게 멋진 복장이었는데!  
흔쾌히 수락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일 동안 숙고 많았어요  
-정현-

캠프가 정말 고생 많았다.  
돌아가서 아버지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현정-

나랑 다들 소별도 많이 읽고  
어른스럽고 멋있게 좋은 소별가  
되길 응원할게! -해원

수고...  
사랑...  
고맙...  
-유-

Good  
Line a baby  
Apl-

KOREA-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평소빈다문화에 밥을 먹는다  
CHEONG-DA-MAL 국제캠프



잔잔하게  
고맙게...  
-서진-

고생 많이 해주어  
고마워요  
고.알린

To: 윤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부끄러워 참아주는 마음이  
해 걱정도 되지만 너무 잘  
주요는 확실히 할 수 있  
더욱 수고하세요!  
-서진-

## ◆ 전하지 못한 이야기

তোমার উল্লস আমার মনকে ২০২৬  
খুশি করে দেবে। - অক্ষয় (স্বা)  
- অক্ষয় =  
মেসারিও পান  
২০২৬. ১২. ৬

로자! 너의 사랑과 친절함이  
안녕도 위로 안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요!  
-도현-

তোমার (কমলা) নন্দন  
রা  
বাংলায়  
দায়িত্ব  
নিন্দার  
হাস্যময়।  
Thank you for  
your service  
in camp the Shalom  
house. If you come  
to Korea to visit  
I'll treat you well.  
- Lee Tae Woon

로자! Little Pretty girl Roza.  
Thank you for helping us last week.  
Your smile always  
touch my heart.  
I love you - MJ



로자  
ROZA

I LOVE & LIKE YOU!  
ptz ptz ptz ptz ptz ptz  
come to Korea. you're so  
beautiful & thank you for  
everything - Love, Helena -  
The day flowers were  
so beautiful  
Let's keep our friendship as  
flexible & bright as your  
Art ~ See you at Camp 2027  
- 정혜림, 민영 -

Thank you, Roza  
See you again  
-정혜림-

Dear, Roza  
Thank you for your warm  
hospitality to us.  
I am really appreciate to you.

Thank you for helping with camp activities.  
I want to talk more!  
See you again! - Soyeon -  
ROZA! I think  
your very kind  
thanks take care of me!  
See you next! -정혜림-



remember  
ME!!  
(+ Bono,  
Stariff...?)

by, Helena



ধন্যবাদ!  
আবার দেখা,  
ঠিক আছে!  
- Helena -

We will miss you for a long time  
from. Mr. Park (R) Army Colonel.  
Arising star of our next-generation program! - Yun -

mondi(..?) mndi...? mudi...?  
I don't know spelling... however.

이상 사립프랑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언젠가 사랑할 같이  
다시 만나요! -도연-

너무 잘했어요!  
이정호

정호씨  
꾸민 사립프랑.  
사랑이 티서  
2026. 1. 26.

Borno!! -Borno  
Good & boy name  
Good voice  
I think you're very  
handsome so when  
you come to Korea,  
you will be popular.  
come!! by Helena



보르노  
BORNO

Well-done!  
Gentleman Borno

Thanks a lot!!  
I'm really impressed with  
Your love and kind!!  
I pray for you & your family!  
- MJ -

BORNO thanks talk to me!  
You very cool guy.  
See you~! -정호-

Drawing lessons are on me  
I promise! See you again at Camp  
Don't be a stranger. Stay gold  
-정호-

Thank you for help

people. See you again.

Our next generation program  
truly needs you.  
Thanks so much -Yun-  
Thank you  
I miss you  
-Yun-

Dear Borno!

I think your job was not so easy.  
But you did your job perfectl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ospitality

Thank you for your service.  
I had so much funny talking  
to you see you next year  
- Lee Tae.woo-

From your Korean  
friend Hyunshik Park



অনেক অনেক ধন্যবাদ  
আপনার ভালো সহযোগিতার  
বিনেতন কামনা করি,  
-সম্মত-

정호 씨 정말  
잘하셨고, 또  
노력하세요!  
-정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상한 영상이나 영상 통화로 밖에 안했는데  
보내게 너무 좋아해요 무조건 한국 놀러오시고  
내년에 또 뵈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태우-

Our boss =  
Very nice and  
good humored

말씀은!  
감사합니다!  
-성민-

비두!  
위라 말하수 없니  
감사와 존경!  
한국에서 반대한  
이정호



비두  
KHADEMUL ISLAM BIDDUTH

비두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  
우리 한국이 변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비두회장님!! Two thumbs up!  
너무 최고! 비두회장님의 따뜻한  
배려 잊지않을게요. 감사드립니다!  
-강영주-

비두 회장님 ♡  
캠프의 모든 순간 회장님과 사임  
세신한 배려였음을 느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마음의 버거운  
가득 공감해주셨고  
이 버거운 1년 단련시켰습니다  
-전준우 팀장-

비두님!  
TV 방 개신채 있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Bono & Rona도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강 팀장  
현경-

비두!  
감사합니다. 대접 받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다들 많이 환영하셔!  
-강원미-

항상 잘 챙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현성-

비두바이!  
정말 존경합니다.  
캠프 하는 동안 계속  
저희 도와주신고 많이  
힘들었는데도...!!  
꼭 쉬시고 건강하세요!!  
-김정현-



비두 등장의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러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정말 할 수 있는 것. 정말  
항상 잘 챙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고! -코노미-

Boss, you are great..!!  
Boss, You are truly the greatest!  
-Yun-  
Hui-

또누!  
반세 너무 잘했어!  
하루 이세 이나  
이정호

My Good Friend  
Very nice man  
Holy min  
Anu

또누 크잘!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공원에서 마트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포 박요! -김도연-

감사합니다  
하루 이세 이나

덕분에  
방글라데시에서 좋은 기억  
만들고 갑니다! -정현-  
thank you TONU!



토 누  
MOHAMMAD ABU SAYEM  
[TONU]

친구부국장님. 열정이 세심하게  
준비해주시고 화제가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영주

토누바이!  
저희가 안전하고  
바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다 토누바이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정현-

사무국장님  
캠프의 모든 순간들 추억이 가득  
같이 지나 드립니다.  
가족들과의 ART time 너무 기억  
이요. 항상 건강하시고 외로운  
때만요 -전홍숙님-

Dear. TONU.

방글라데시와 함께 KBFIS의  
두창을 이룩해서 소중한 국제협력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halom (house & KBFIS forever!  
-박경숙-

고생하셔요,  
고사무너요.  
-이재우

고생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재우-



Take + See  
Care you  
Bro! Sooy  
-GUN-

2026 2026 = 2026 2026 2026

김치님 맛있어요.  
한국에서 만나요  
이정호

মনক  
খানবাহী  
-Yun-

মনুর নী! গাফ মন্বয়েন বন  
দুইনে জেগে মন্বয়েন গা  
হাস হাসেদেইন!  
উই দই মন্বয়েন -ডয়ন-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성-

Manjur=바이

মনুরে উইকে জেরেগাংন শুরান গাফেইন

জগান মেজেরেদইন! গাফেইন  
(গাফে জেরে কেরেইন!) -গাফেইন

감사합니다.  
-성이-

잘지내다가요  
감사합니다  
-성인-

Manjur 바이.

Manjur 바이 와이퍼가 저  
아플 때 정말 잘 행거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고 많이 잊었어요! -정현-



만주르  
MANJUR HOSSAIN

미안 예쁜 Manjur,  
너무 고생했어!  
한국에서 또 보자요.

MANJUR 김치 짜!  
대형이 편하게 지내라기엔  
정말 감사해요!  
See you again! -정현-

Manjur 아이 ~  
& PuTul 라 예쁜 따님. 아드님  
만두만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많은 곳으로 감동 가득 받았어요  
다시 만나는 날은 기대하겠습니다  
-전홍숙 팀장-

Dear Manjur  
Manjur 바이. 정말로 많은 감사나 같은 마음  
한국에서 기억합니다.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함께 국제협력캠프를  
진두 이끌어 감사드립니다.  
From Hyeonuk Park



Manjur 바이  
Manjur 바이  
-정현-

Manjur, You are Really  
Great.   
-Alan-

같이 있어서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뵈겠습니다. -비테이-

너무 많이 감사.  
또 만나요.  
가족들에게 전해  
주세요.  
이렇게.

노바님! 가족들과 함께 귀중한 식사  
제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고 우리도 만나요!  
도연 -

집귀경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성 -

노바 바이!  
저에게 건강해졌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입니다  
-정현-

집으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이해유-

Now we can go to Dohar with No worry.  
Next Camp! I'll stay over at Your home!  
- Yun -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노바님

노바씨! 가족들의 따뜻한  
포옹과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가족 모두 행복하길  
바라요! -강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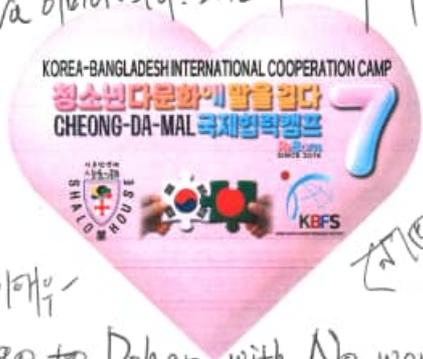
Nova!  
Thank you for  
everything!  
See you again!  
-정호-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노이-  
따뜻한 노바님  
맛있는 식사와 큰대관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영감 희망합니다  
-전현숙 님-



노 바  
JAHANGIR ALAM NOVA

Dear. Nova.  
가치있는 하루 가라앉혀 주신  
6시간 동안 대해 참이신 당신의 집!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Nova 이여. 누나. 그리고 Family 모두 행복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정호-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집에 오길  
바라요!  
-Amirul-

Mrs. Zuo Jihui  
Mrs. Biko Jihui  
is

항상 감사-하비야.  
한국에서 꼭 안보  
이정호

항상 감사  
하비야

하비씨 좋은 숙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도 반나요! -도연-

항상 감사  
하비야

Thank you for your  
service.  
- Hyun Sung -

HABIB!  
라디아 너무 귀엽네요  
thank you for everything  
-정정, Helena-



하 비  
MOHAMMAD RASEL  
(HABIB)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 got to rest in  
a comfortable in a nice and wonderful house  
- MJ -

The watermelon was Sweet  
but your kindness was even  
sweeter. Thank you for helping  
sick child get back an  
appetite.  
your Warm Care became  
the best medicine for us  
- 진 탐자 -

하비야!  
13살동안 저희 행복거사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현-

Dear. Habib  
Last year, I met you first time in Bangladesh.  
You were so kind and also provided us nice  
your house. It is not easy me know! (Every yea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arm hospitality  
I wish you and your family  
long time in happiness!

From Hyunah Park

শুভকামনা

Stay healthy, and let's meet again  
next year! -YUN-

Thank you for your service.  
You're local member, but  
please come visit  
Korea later.  
- Lee Tae -

long time no see

코빌 고생 많이 했어.  
늘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신빙함.

늘 안전이신게서  
수고 많으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  
감사합니다.  
-강현성-

코빌! 두에서 챙겨주는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안전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도연-



코 빌  
MOHAMMAD KABIR AHMED

무엇이든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한 코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현성-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큰 안전감과 신뢰감을  
안전하게 캠프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태우-

코빌 바이!

저 신경써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캠프 도운 주신 것  
감사 하고 또 뭘 더  
바랄 게요! 강현성

Dear. Kabir Ahmed.  
항상 안전한 길로 바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주위에 대한 힘  
을 부탁드립니다. From. Mr. Hyunshik Park



사람들 저한테  
함께해서 주시길  
너무 배워 리요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에  
같이 있어주세요! 암마랑  
또 만나요!  
기다려주세요 -이태우-

KABIR,

The way will open for you  
Someday -YUN-

KABIR,  
Always Thanks You  
Jalim

Good Friend

바달!  
늘 건강해. 고생  
많았어. 식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이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성-



바달  
BADAL

바달님께서 저의 행거주시고  
인도해주셔서 보 감사했어요!!  
덕분에 안전하고 편한 일종이였습니다  
감사해요 프 바나외  
-김도연-

좋은 일을 언제나 웃으며 해주셨던  
바달님이!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기쁘네요! -김영주

아뽀 아뽀님  
항상 건강하세요  
선기도 좋은편과 왔기아래  
-전원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피카 마스키  
알고도 잊어먹지 않음에도  
또 올게요! -이태우

바달씨!  
13년동안 수고 많았었고  
늘 건강하고 아프지않게!  
고생하셨습니다!!  
-정현민-

Dear, Badal  
작은기인! 수없이 멋진 Friend.  
정다발 국제협력 캠프를 저와함께  
프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영석-

항상 바달  
영감이었습니다. ^^  
-김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김민-



আমি আছি  
-Emile-

다시 만나 반가운 바달  
steeenagar에서 만나는 날이  
언젠가 이를 바랍니다!  
-민우

My Lovely Brother

감사합니다  
포리오,  
강민아!

아프지 말고,  
무릅치로  
질해. 가족으로  
구해봐 (생육비)

최대한 준비 철저 해서  
제발 없어요.  
- 강현성 -

조리부님과 다른분들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만나요! 드림

준비하세요!  
저 이제 안아파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정현 -

꼭꼭히 안원 위해  
노력 해서 감사 합니다  
- 강민아 -



조 히 르  
MD ZAHIR HOSSAIN DEWAN

등등한 바다도 갔었는데  
조리는 너무 감사해요!  
- 강민아

우리 모두의 안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조히르씨  
너와 감사합니다 - 권현정  
My best brother, Zahir  
I'm praying for you

Dear Zahir  
가게된 여행에 무사히 돌아오는 모든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히르씨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I miss you!  
너와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  
우리들의 추억을  
from Hyeonsek Park -  
Wishing you  
all the best!  
- YUN -



♡♡  
আলেক আলেক ব্রাহ্মণ  
- Bernifa -

많이 쉬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길요!  
기다려주세요! -이리우-

조아  
조아  
아주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আমার স্বপ্ন

잘 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현성-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항상 애플님 덕분에 카로운 편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  
고생 많으십니다. 워프 만나요!

-도연-

저도~저도~ ~ 아주 저도~!  
어머님의 긍정적이고 에너지  
배우고 갑니다. 또 만나요!  
-강영주-

특별히 바꿀 것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조아-  
good ~ good ~ good  
very good ~ thank you!  
-미미-

조아 동생 고생 많고  
수고 했어요!  
. 사랑해요 -

조아 조아 조아~!  
아~수 조아 조아!!  
-조아, 현영, Helena-

안녕하세요 애플씨들  
매우 재미있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랑  
이 된 사람들 정말  
같이 행복해요! 기억해요!  
-이해우-

조아 조아  
어제나 된 일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조아 아주 조아  
-장순미-



애플  
MOHAMMAD APLE KHAN

আমিও আমিও  
-সম্মিতা-

방글 바글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2년 캠프에서 너무  
-전정희-

잘 챙겨주세요 감사하  
재밌었어요 -해인

Dear. Apple Khan.

이름이 Aple이지만 Apple처럼  
멋지게 잘하셔 감사하며 사랑을  
받는 My friend! 사랑합니다.  
-Mr. Hyunjaeh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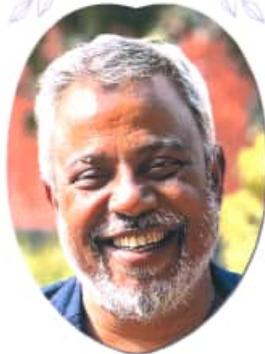
애플씨!  
조아 조아 아주 조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정현-

Yong Goo  
2026

서심환 보살핌 감사.  
자관. 자동차 망자진것  
보살핌께. 정중

감사합니다  
나날이 더  
부족합니다  
- 강현성 -

감사합니다.  
- 강현성 -



자 키 르  
ZAKIR

섬뜩 좋은 자키르 보!  
자동차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조 반나고요 - 소연 -

웃음이 많이 멋진 자키르 바이!  
( Your smile is so lovely )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See you next time!! - 강영주

친절한 자키르 씨  
김은 사랑 말로 감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진희수 팀장 -

자키르 바이!

저 이제 건강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정영민 -

위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소이 -

Dear. Zakir  
웃는 얼굴이 세계 각국의 무용입니다.  
정제 하라게신 일로 인해 매우 바빠실에도  
부담 없이 항상 함께 해주신게 감사입니다.  
- 박현석 -

শুভেচ্ছা  
→ smile →

KOREA-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청소빈다문화에말을걸다  
CHEONG-DA-MAL 국제협력캠프



Above all,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s  
arranging the lunch restaurant that day.  
It was the best place - YUN -

안녕이 못보이서 아쉽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태후 -

Job min boy

고생 많이  
했다. 늘 감사해  
평안하길. 이정호

감사합니다  
관계하신나 고생하셨어  
고생이셔도  
나랑 기운  
감사

친절하게 대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강현성-



모 니 르  
MONIR

모니르 선생님! 한국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답게  
한국어 너무 잘하시어 소름이 돋았어요!  
노래도 잘 부르시면서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오 반사오!  
-도연-

MONIR~!  
한국의 선생님!  
노래도 정말 잘 부르시고  
저희 잘 챙겨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오바스! -현정-

모니르선생님 !!  
자상하게 설명해주시고  
알려주시어 감사했습니다  
-진원정-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진희-

그대 잘 들었어  
함께 버텨서 감사드려요. ^^  
-성민-

모니르바이!  
한국어 너무 잘해서 진짜  
한국 노래 유명한것도 다  
알고 계시고 .. 멋있습다!  
칭겨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정원-

우리의 한국어 사범 모니르바이!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모니르의  
많은 감동이였어요. 너무 과감하네요!  
가족님들은 무뎀해서도 기도해주세요!  
-강영주-

শুভ কামনা  
-ammi-



Dear. Monir  
항상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청다실 국제협력 캠프가  
성공으로 아시다 있도록 사생활  
사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韓國으로 전하리라 하는 불빛의  
등대 (light house) 같이 부탁드립니다.  
-박현석-

진짜 노래 잘 부르시어  
가 들어올 내연에 영미라고 같이  
감사할 기다려요! -이태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편안함 여행 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원조 만사요! -도연-

감사합니다.  
-연희-

헝 바이!  
극심한 저의 여행과사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디든 돈오바드!  
정현-

헝! 너무 잘생기셨어요  
기쁘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호-

좋은 경험 생각이  
꽤여기 한월이제  
노예로 모음 감사합니다  
-광욱-



헝  
HAQUE

세상만 중부라 꾸며주는 여정에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국

모든준비에 감동입니다  
고사드리며 27년전공로에  
다시 만사요 -진홍숙원장-

감사합니다  
-소이-

Dear Mr. Haque  
칭찬할 때마다 감사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신에 감사  
드립니다 - Mr. Hyunsik Park -

Be happy ~  
-Jin-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재우-

Thank you for welcoming us  
So warmly again.  
Please send my regards to  
your wife and children. YUN-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성-

리톤 바이!  
1주일동안 저희 책가게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간사형이랑 좋은  
연애 계속 가요~!  
-김유연-

Thank you for  
spending so much time  
with us again, brother!  
-YUN-

감사합니다!  
다행이도 반!

감사! 저의 캠프를 지켜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항상 건강하세요  
-진환님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뒤에  
즐겁고 편한 캠프였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만나요!  
도연-



리톤  
LITON MAHMUD

Dear Liton  
방글라데시에서 온 캠프를  
받은 영광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캠프를 통해 전하는  
모든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From Hymusik Park



감사합니다!  
-김민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태우-





 **함께한 순간의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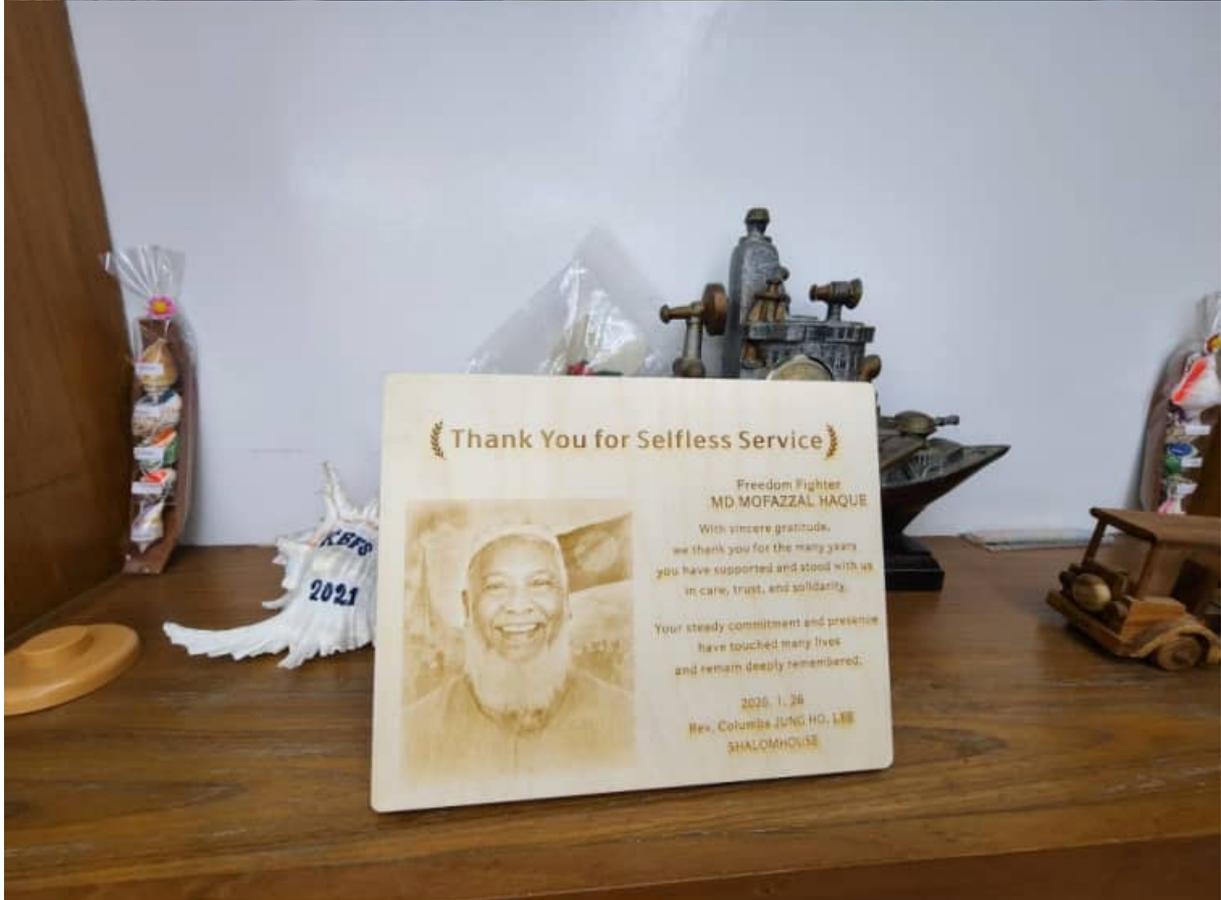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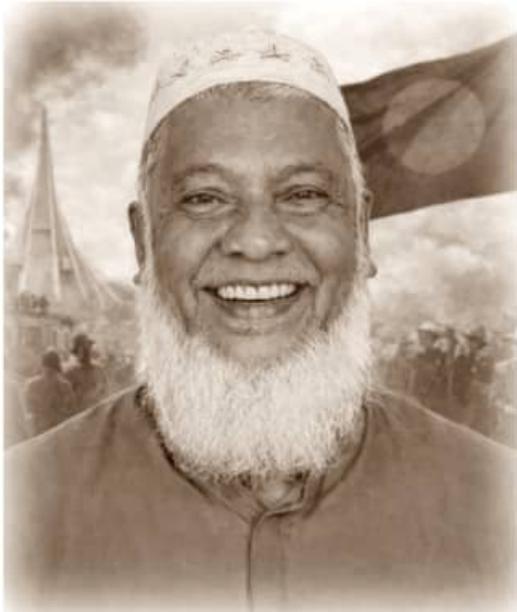








Thank You for Selfless Service



Freedom Fighter  
**MD MOFAZZAL HAQUE**

With sincere gratitude,  
we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you have supported and stood with us  
in care, trust, and solidarity.

Your steady commitment and presence  
have touched many lives  
and remain deeply remembered.

2026. 1. 26

Rev. Columba JUNG HO, LEE  
SHALOMHOUSE

Thank You for Selfless Service



**SUBORNA AKHTER**

With sincere gratitude,  
we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you have supported and stood with us  
in care, trust, and solidarity.

Your steady commitment and presence  
have touched many lives  
and remain deeply remembered.

2026. 1. 23

Rev. Columba JUNG HO, LEE  
SHALOMHOUSE

Thank You for Selfless Service



**KHADEMUL ISLAM  
BIDDUTH ( BIDU )**

With sincere gratitude,  
we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you have supported and stood with us  
in care, trust, and solidarity.

Your steady commitment and presence  
have touched many lives  
and remain deeply remembered.

2026. 1. 23

Rev. Columba JUNG HO, LEE  
SHALOMHOUSE

Thank You for Selfless Service



**MOHAMMAD ABU  
SAYEM ( TONU )**

With sincere gratitude,  
we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you have supported and stood with us  
in care, trust, and solidarity.

Your steady commitment and presence  
have touched many lives  
and remain deeply remembered.

2026. 1. 23

Rev. Columba JUNG HO, LEE  
SHALOMHOUSE

Thank You for Selfless Service



**MANJUR HOSSAIN**

With sincere gratitude,  
we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you have supported and stood with us  
in care, trust, and solidarity.

Your steady commitment and presence  
have touched many lives  
and remain deeply remembered.

2026. 1. 23

Rev. Columba JUNG HO, LEE  
SHALOMHOUSE

Thank You for Selfless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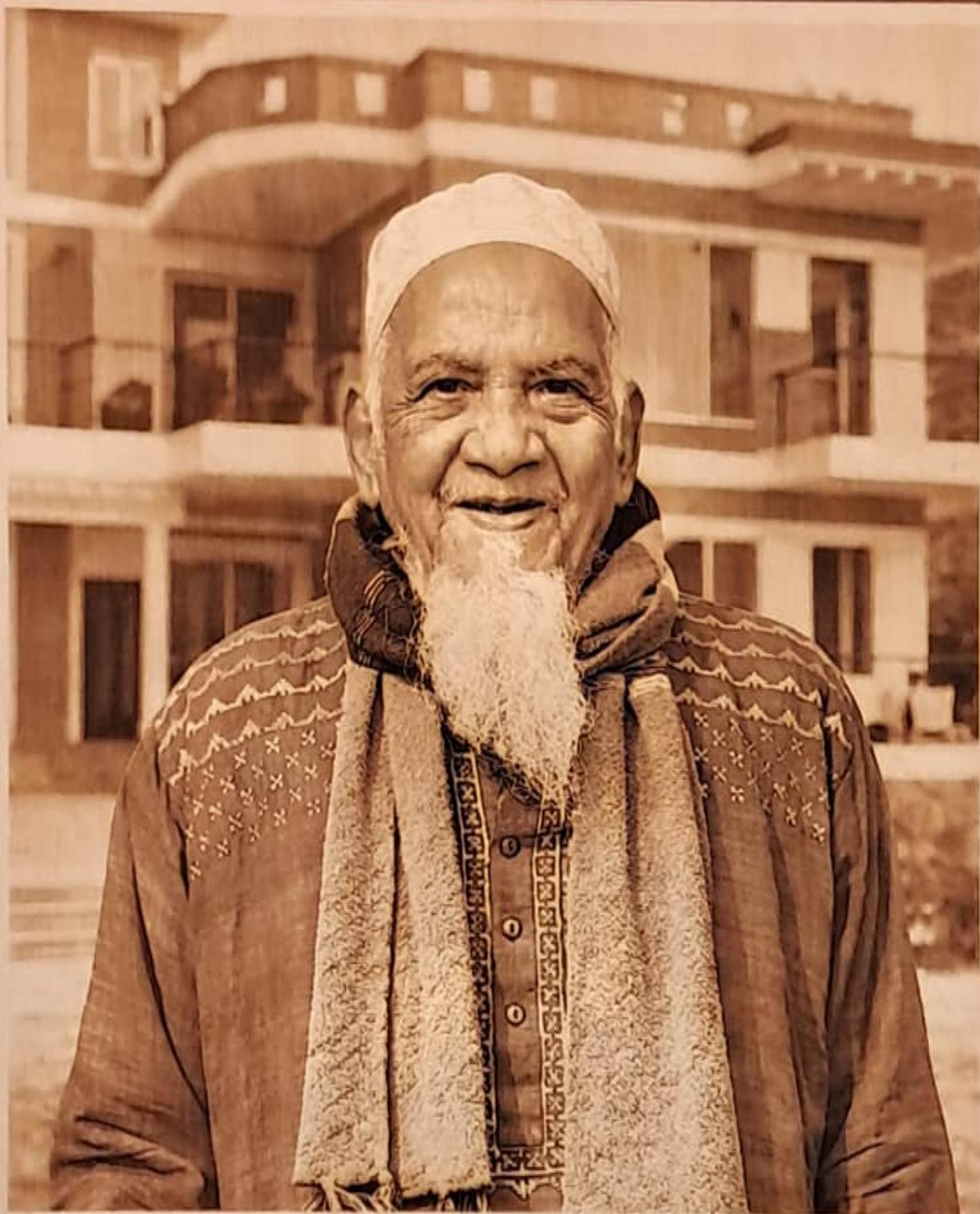
**MOHAMMED JAHANGIR  
ALAM ( NOVA )**

With sincere gratitude,  
we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you have supported and stood with us  
in care, trust, and solidarity.

Your steady commitment and presence  
have touched many lives  
and remain deeply remembered.

2026. 1. 23

Rev. Columba JUNG HO, LEE  
SHALOMHOUSE



ভালো করে যেও, নিরাপদে ফিরে এসো.

Go well, and come back safely.

잘 다녀오거라.

# Korea-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2026 한국-방글라데시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 청·다·말 7 국제협력캠프

CHEONG-DA-MAL



남양주안암병원  
장진혁 이사장

### 청다말 7을 함께 만든 사람들 SPONSORS & SUPPORTERS

척추·관절에  
좋은아침병원  
송준혁 원장



현정숙

양진영

이광자(리자)

허광수

이상헌

한형석

이지연

이준

한을상

조권기

주식회사 더마크

무민소 박승일

강규영

박상현

박상만

김영대

유영근

이경수

이선영

서상철

정우식

최보원

최왕순(박사)

메디칼스킨(주) 손의섭

대림 이미림

김석

김선미

국민대학교 김상용(교수)

국민대학교 김은영

서울대학교 김승섭(교수)

TUAN

함세희

장명숙

대형중 김도윤

대형중 김광숙

우덕기(신부)

석광훈(신부)

이범생

이승현

이제희

이종희

국민대학교 장은실

무석(한자연구사) 한국희

VJDUYDN

전영숙

전상섭

문경희

정원희

이기원(사라)

정태희

이재항

조미숙

조미진

차홍도

최민노

최은미

안태훈

안태용

김종훈

신은정

성은경

경안교회 이미영

경안교회(주) 김옥수

이현진

김수연

이연준

박현식

강명주

이혜숙

조은우

할욱현

박상원

김종술(이)

이명선

이종길

백주선

삼백(한양대학교) 문해교실

신이수

김미진

이태우

강현성

김현경

김성현

김정연

김해인

윤소이

김효선

서경하

민은정

대한상공회 평택교회

허문경

이계우

전지우

이연준

장공자

전효숙

임정연

김진희

동명지(안) 유권

A+성심 이대성

유진용

we friends



캐리일 에프엔비



경기북부 지방행정사회



다형중요양원 주아인보호센터

대표 장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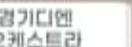


미래에듀서외적협동조합



성천(주) 송재, 수종목(주)

오남소고기국밥 안승한



최혜영

SALIM

NADIM

이마툼

KHAN MD RAKIB

UDDIN SM JAHIR

ISLAM RAIHAN

RAF SHARIF AHMED

SANY MOLLAH

HOSSAIN MURAT

박희중

RANA MD JEWEL

유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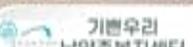
김미영

신미하

김용안

강선미

MILIA SADUR RAHMAN



기쁜우리 남양주복지센터



SIMPLE TOUCH



마석이주극장



성남시 다함게을센터 26호점

Ae ADD BLKCO (주)애드일렉코

당신의 사랑이 희망이 되고, 더 나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 청다말 RE:GEN

# 국제 협력 캠프



KOREA - 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CHEONG-DA-MAL

2027년 1월 11일 - 19일 (7박 9일)

다음 세대로 가는 동행, 지금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법 01

## 참가자로 함께 가기

- ☑ 활동지역 : 방글라데시 다카 - 통기바리 등 문시건조 지역 일대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연중 수시 접수)
- ☑ 참가비용 : 220만원~ (비자/항공료/보험 및 체류비용 일체)
- ☑ 지원자격 : 전문가멘토 - 현지 프로그램 각 분야 전문가  
청년스텝 - 만 20-35세 관련 전공자 및 활동가  
청소년단원 - 만 15세 이상 청소년

참가자는 사전교육부터 현지활동, 사후모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여아 기숙학교 급식 지원과 보건용품 지원(2026)



초등학교 학용품과 가방, 행복도시락 나눔(2026)

## #함께하는 법 02 후원자로 힘이 되기

행복도시락 나눔, 귀환이주민 초청 한국의 날  
푸드 포 라이프, 노트북/IT 기기 지원  
학용품 · 체육 · 문화용품 · 의약품 나눔 지원  
교육기관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여아 보건용품 지원  
문화교류 공연, House of Humanity 건립 등

#함께하는 법 03

구독 좋아요



## SNS로 알리기

청다말 8 국제협력캠프 소식과 실물의 짐을 알리는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SHALOMHOUSE

www.SHALOMHOUSE.or.kr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2026)



후원 농협 204074-51-023539

문의 ☎ 031-571-2005 nyjshalom@gmail.com

# 생명의 불빛

## LIGHT OF LIFE



이주노동자 긴급의료 지원 및  
방글라데시 무료진료 지원 캠페인



- 캠페인의 장기적 비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
- 개인의 작은 후원이 만드는 큰 변화  
15,000원으로 한 주의 무료진료 지원
-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독려  
정기후원을 통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생명의 불빛을 되살립니다.



### 약품비 지원

- 매주 1회 무료진료 유지
- 필수 의약품 확보
- 진료 품질 향상



### 정기 후원 의미

- 월 15,000원
- 1주일 무료진료 운영
-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 안정적 의료 지원

- 장기적 건강 관리
- 의료진 활동 지원
-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



함께하는 약속

생계위기에 처한 현지 가정에  
한 달분 식품꾸러미를 전달합니다

# 푸드포라이프 Food for Life



# food

Food For Life



지정후원  
월 15,000원  
(1가정당)



지정후원 **농협** 351-1102-8592-23

생계위기에 처한 현지 장애 및 취약 가정에  
월 만오천원으로 한 달분 식품꾸러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만드는 단 하나의 약속을 결심해주세요!



# FOOD FOR LIFE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 후원 캠페인

#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Sign up & Donate easily by QR code

## 국제협력사업 지정후원 약정서



SHALOMHOUSE Internatinal Cooperation Campaign Sponsorship Agreement

이름 NAME		등록번호 ID No.	*CMS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 *****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이메일 E-mail	@		

후원할 캠페인을 선택해주세요. Please select the campaign you want to sponsor

- (  )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 Other support activities for migrant worker  
 (  ) 푸드 포 라이프 Food for Life - Emergency food sharing activities  
 (  ) 하모니 포 호프 Harmony for Hope - First music class support for children

### 정기후원신청 Monthly Sponsorship Agreement

은행/계좌번호 BANK ACCOUNT	/	이름 NAME	
납부일 PAYMENT DATE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15	*계정이세입에 마이너스 재출금 됩니다. *If payment is not made on the due date, it will be withdrawn again.	
후원금액 SPONSORSHIP AMOUNT	<input type="checkbox"/> 15,000 <input type="checkbox"/> 30,000 <input type="checkbox"/> 50,000 <input type="checkbox"/> (   ) 원 WON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소득세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r donations can be deducted from your income at year-end tax settlement according to the law.

·모든 프로그램은 후원자와 봉사자에 의해 운영됩니다. ·All our programs is supported by sponsors and volunteers.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I understand the above and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상기 본인은 위에 기재한 방법대로 샬롬의 집 회원가입 및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I applies for membership and monthly sponsorship for SHALOMHOUSE as described above.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year   month   day   NAME    (sign)
------------------------------------	-------------------------------------

후원약정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사진을 찍어 E-mail로 보내주세요

☎ 031-571-2005    ☎ 031-527-5340    ✉ nyjshalom@gmail.com

**Your donations are used for educational, cultural, and welfare activities for migrant workers and needy neighbors.**

여러분의 후원금은 이주노동자와 소외된 이웃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국제협력 지정후원 : 농협 351-1102-8592-23 남양주 샬롬의 집

일반후원 : 농협 204074-51-023539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과 나의 이야기,*



청다말 캠프 더보기  
샬롬의 집 국제협력사업

<https://shalomhouse.or.kr/국제협력사업/>



주최/주관



## 2026 청다말 7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 Re:Born 활동보고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

---

발행일 : 2026. 2. 21

발행인 : 이정호 신부

발행처 : 이주민연대 살림의 집 ([www.SHALOMHOUSE.or.kr](http://www.SHALOMHOUSE.or.kr))

문의 : 031-571-2005 / [nyjshalom@gmail.com](mailto:nyjshalom@gmail.com)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4, 명승빌딩 3층

후원 : 농협 204074-51-023539 (남양주 살림의 집)

SINCE 2016  
2026 Re:Born

# 국제협력캠프 CHEONG-DA-MAL

Korea-Bangladesh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p

한국-방글라데시 국제 협력 캠프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

## 활동 보고서

CAMP ACTIVITY REPORT



이주민연대  
사람들의 집



발행일 2026. 2. 21  
발행인 이정호 신부  
발행처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문의 031-571-2005 / nyjshalom@gmail.com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4, 명승빌딩3층  
후원 농협 204074-51-023539 남양주 샬롬의 집

